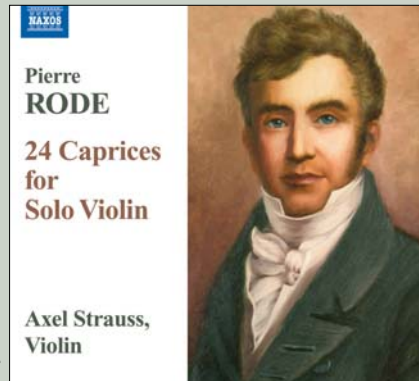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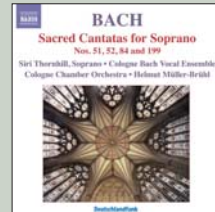
부담없는 가격 무한한 레퍼토리의 보고(寶庫)

Naxos new rele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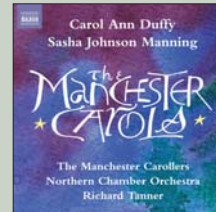
8.570958



로데:
솔로 바이올린을 위한 24개의 카프리스
악셀 슈트라우스(v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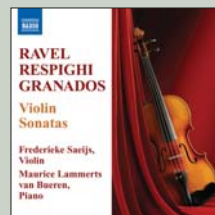
8.570453
JS 바흐:
소프라노를 위한 칸타타
(BWV 51, 52, 84, 199)
시리 토른힐(sop)
헬무트 뮐러-브뤼클
클른 챔버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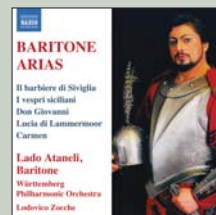
8.572469
더피 & 맨닝:
맨체스터 캐롤스
더 맨체스터 캐롤러즈
리처드 뎀너
노던 챔버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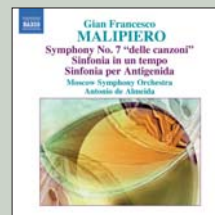
8.572246
마이클 엉거 오르간 리사이
를
북스테후데, JS 바흐,
리타이제, 비도르, 메시앙



8.572093
라벨, 레스피기, 그라나도스:
바이올린소나타
프레데리케 사에이스(vn)
마우리스 램메르츠 판 부에
렌(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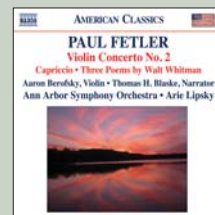
8.572438
바리톤 아리아
(베르디, 로시니, 모차르트,
도니제티, 레온카발로, 비제
외)
라도 아타넬리(bar)
로도비코 조제
뮌헨 챔버 필하모닉



8.570881
말리피에로:
교향곡 7번, 안티테니다를
위한 심포니아 외
안토니오 데 알메이다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



8.572153
마르케비치:
사랑의 찬가, 이카루스의
비행, 콘체르토 그로소
크리스토퍼 린던-지
아른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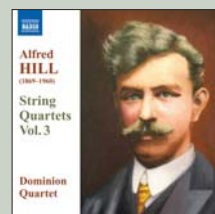
8.559606
페틀러:
바이올린협주곡 2번,
윌트 휘트먼의 3개의 시,
카프리카치오
아론 베로프스키(vn)
아리 립스키
안 아바 심포니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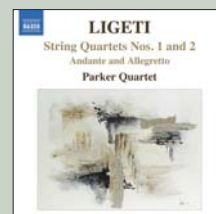
8.572342
남부의 하모니
(카발레프스키, 코플랜드,
스티븐스, 그랜덤 외)
러셀 C 미켈슨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 윈드
심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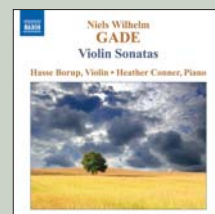
8.572159
드보르작:
피아노오중주
Op.23 & 87
헬레나 수카로바-바이저(pf)
프라하 블라흐 사중주단



8.572446
힐:
현악사중주 5번 '연향곡',
7번, 9번
도미니언 현악사중주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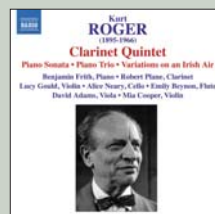
8.570781
리게티:
현악사중주 1,2번,
안단테와 알레그레토
파커 현악사중주단



8.570524
가데:
바이올린소나타 1-3번
하세 보루프(vn)
헤더 코너(pf)



8.572096
가르비주:
바스크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
호세 이그나치오
(txistu)
알바로 세도야
(pf)



8.572238
로게르:
클라리넷오중주,
피아노소나타,
피아노트리오 외
골드 피아노 트리오
로버트 플레인
(cl) 외



8.559629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미국 음악
(번지, 모라벡,
샌포드, 로렐 외)
마야 마틴(fl)
칼렛 발렌틴(pf)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41호 | January 2010



DVD Hot Issue

클래식 영상물의 새로운 강자 C-Maj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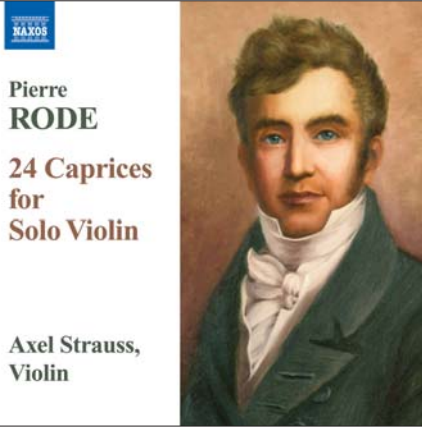
Cover Story

[특집] 2009년 베스트 음반들



Naxos

www.naxos.com



Pierre RODE

24 Caprices for Solo Violin

Axel Strauss, Violin

8.570958

로데: 솔로 바이올린을 위한 24개의 카프리스 악설 슈트라우스(vn)

바이올린 학도를 위한 주요 교본 중 하나인 로데의 24개의 카프리스는, 파가니니의 동일한 유형 작품보다 수년 앞서 완성되었다. 스스로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피에르 로데는 이 작품을 속에 이 악기에 대한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충동원했다. 멘델스존의 무언가 편곡집으로 국내에서도 호평을 받았던 독일 바이올리니스트 악설 슈트라우스의 출중한 기량이 이 음반을 통해 다시금 드러난다.



RAVEL
RESPIGHI
GRANADOS

Violin Sonatas

Frederieke Saeijs, Violin
Maurice Lammerts van Bueren, Piano

8.572093

라벨, 레스피기, 그라나도스: 바이올린소나타 프레데리케 사에이스(vn) 마우리스 램메르츠 판 부에렌(pf)

20세기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이 남긴 바이올린소나타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라벨의 마지막 실내악작품인 G장조 소나타는 블루스의 영향과 엄정미를 결합한 작품이며, 마지막 파사칼리아 악장이 인상적인 레스피기의 B단조 소나타는 드라마틱한 특징이 두드러지는 대작이다. 그라나도스의 단악장 소나타에서는 스페인 민속음악의 독특한 풍미가 자연스레 배어나온다.



BARITONE ARIAS

Il barbiere di Siviglia
I vesperi siciliani
Don Giovanni
Lucia di Lammermoor
Carmen

Lado Atanelli, Baritone
Württemberg Philharmonic Orchestra
Ludovic Zucchi

8.572438

바리톤 아리아 (베르디, 로시니, 모차르트, 도니제티, 레온카발로, 비제 외) 라도 아타넬리(bar) 로도비코 조케 뷔르템베르크 필하모닉

빈 슈타츠오퍼, 라 스칼라, 바이에른 슈타츠오퍼 등의 정상급 오페라 무대를 누비고 있는 그루지아 출신의 바리톤 라도 아타넬리의 녹소스 데뷔 레코딩. 자신의 장기와도 같은 베르디 초기 오페라의 아리아들 외에도,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세비야의 이발사' 중 '도시의 재주꾼', '돈조반니' 중 '삼페인의 아리아' 등의 인기 바리톤 아리아들, 그리고 그루지아 음악의 대부분 아라키쉬 빌리의 아리아 등을 함께 담았다.



DVOŘÁ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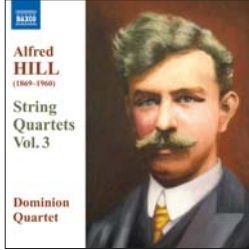
Piano Quartets

Vlach Quartet Prague
Helena Suchárová-Weiser, Piano

8.572159

드보르작: 피아노오중주 Op. 23 & 87 헬레나 수카로바-바이저(pf) 프라하 블라흐 사중주단

드보르작이 남긴 두 개의 피아노오중주는 실내악 음악 분야에서 베토벤, 브람스, 모차르트, 멘델스존 등의 그것에 비견할 만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체코 민속음악의 영향과 우아함이 돋보이는 1번은 변주곡형식의 2악장이 특히 빼어나며, 보다 심각한 분위기의 2번은 표정 풍부한 첼로 솔로가 돋보이는 느린 악장과 왈츠풍의 서정적인 스케르초 악장이 매력적이다.



Alfred H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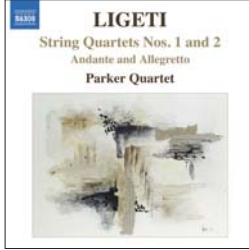
String Quartets Vol. 3

Dominion Quartet

8.572446

힐: 현악사중주 5번 '연합곡', 7번, 9번 도미니언 현악사중주단

알프레드 힐(1869-1960)은 호주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음악을 배웠고, 이후 뉴질랜드에서 생을 보낸 작곡가다. 그는 영국 근대 음악의 보수적인 성향을 물려받았다. 현악사중주 5번 '연합곡'은 악장 각각에 1차대전의 연합인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영국의 이미지를 투영한 독특한 작품이다. 후기낭만주의와 프랑스 왈츠풍의 서정적인 특성이 삽입된 9번이 수록되었다.



LIGETI

String Quartets Nos. 1 and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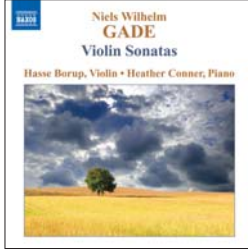
Andante and Allegretto

Parker Quartet

8.570781

리게티: 현악사중주 1,2번, 안단테와 알레그레토 파커 현악사중주단

리게티의 합창음악과 관현악음악은 큐브릭 감독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통해 전세계적인 지명도를 얻었지만, 그의 실내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다. '메타모르포시스 녹턴'이라는 부제의 현악사중주 1번은 버르토크와 마찬가지로 헝가리 민속음악의 색채가 진하게 느껴지는 작품이며, 2번은 정과 동의 극명한 대비가 인상적인 작품이다.



Niels Wilhelm GADE

Violin Sonatas

Hasse Borup, Violin • Heather Conner, Piano

8.570524

가데: 바이올린소나타 1-3번 하세 보루프(vn) 헤더 코너(pf)

덴마크 작곡가 닐스 가데(1817-90)는 멘델스존의 후임으로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의 감독을 맡았으며, 슈만, 요아힘 등과도 깊은 친분을 나눴다. 그는 슈만과 멘델스존의 로맨틱한 악풍을 충실히 계승하였는데, 클라슈만에게 헌정된 가벼운 분위기의 1번, 로베르트 슈만에게 헌정된 쾌활한 2번, 그리고 빼어난 아름다움의 로맨틱 악장이 인상적인 3번 모두 이러한 가데의 작곡성향을 여실히 보여준다.



Gian Francesco MALIPIERO

Symphony No. 7 "delle canzoni"

Sinfonia in un tempo
Sinfonia per Antigénida
Moscow Symphony Orchestra
Antonio de Almeida

8.570881

말리피에로: 교향곡 7번, 안티제니다를 위한 신포니아 외 안토니오 데 알메이다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

말리피에로 관현악 작품시리즈의 4번째 음반. '노래의 교향곡'이라는 별칭의 교향곡 7번은 연속적인 반복을 통해 힘을 더해 나가는 감동적인 느린 악장이 특히 인상적인 서정적인 작품이다. 안티제니다를 위한 신포니아는 고대 테베의 전설상의 피리 연주자의 이름을 딴 작품으로, 각진 선율선과 공격적인 불협화음을 담은 말리피에로의 가장 수수께끼와도 같은 작품 중 하나이다.



IGOR MARKEVI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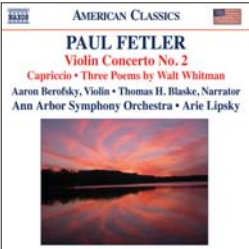
Complete Orchestral Works • 3

Cantique d'Amour • L'Étranger d'Icare • Concerto Grosso
Aarhus Philharmonic Orchestra • Lyndon-Gee

8.572153

마르케비치: 사랑의 찬가, 이카루스의 비행, 콘체르토 그로소 크리스토퍼 린던-지아른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마르케비치는 지휘자로 더 유명한 이름이지만, 작곡가로서도 주목할 만한 다수의 작품을 완성하였다. 마르케비치 관현악 시리즈의 3번째 음반으로, 1933년 초 연 당시 미요의 절찬을 이끌어내었던 '이카루스의 비행', 폴리톤과 다양한 리듬 패턴에 대한 실험적 작품인 콘체르토 그로소, 관현악의 색채와 감성적인 내면이 라벨을 연상케 하는 '사랑의 노래' 등을 수록하였다.



AMERICAN CLASSICS

PAUL FETLER

Violin Concerto No. 2

Capriccio • Three Poems by Walt Whitman
Aaron Brofsky, Violin • Thomas H. Blake, Narrator
Ann Arbor Symphony Orchestra • Arie Lipsky

8.559606

페틀러: 바이올린협주곡 2번, 월트 휘트먼의 3개의 시, 카프리지오 아론 베로프스키(vn) 아른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미국 음악계의 원로인 폴 페틀러(1920년생)는 '프로그레시브 리리시즘'이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로 주목받고 있는 작곡가다. 월트 휘트먼의 시에 곡을 붙인 '3개의 시'는 낭송이 덧붙인 바이올린협주곡과 같은 독특한 형식의 작품으로, 장난감 피아노와 뮤직박스과 같은 색다른 악기들의 활약이 인상적이다. 바이올린협주곡 2번은 활기찬 에너지와 우아한 오케스트레이션이 결합된 작품이다.



WIND BAND CLASSICS

SOUTHERN HARMONY

Kabalevsky
Stevens
Grantham
Lauridsen
Copland
The Ohio State University Wind Symphony
Russel C. Mikkelsen

8.572342

남부의 하모니 (카발레프스키, 코플랜드, 스티븐스, 그랜덤 외) 러셀 C 미켈슨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 윈드 심포니

멕시코의 미국적인 정취를 담은 코플랜드의 '열 살롱 멕시코'와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신봉자였던 카발레프스키의 대표 관현악곡 '콜라스 브류논' 서곡, 그리고 미국 합창음악의 거두인 라우리드젠의 정결한 합창곡인 '오 마그눔 미스테리움'이 관악밴드를 위한 편곡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1800년대 중반 미국 노래들을 모아서 엮은 그랜섬의 '남부의 하모니'와 존 스티븐스의 윈드 밴드를 위한 교향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SPANISH CLASSICS

TOMÁS GARBIZ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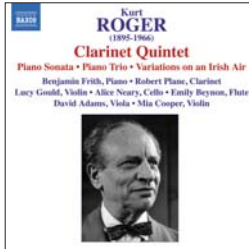
Music for Txistu and Piano

Six Old San Sebastian Songs
Basque Suites
Four Zortzikos
Jose Ignacio Ansoaena, Txistu and Tamboril
Álvaro Cendoya, Piano

8.572096

가르비주: 바스크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 호세 이그나치오(txistu) 알바로 세도야(pf)

토마스 가르비주(1901-89)는 바스크 지방이 배출한 20세기 스페인 음악계의 위대한 작곡가다. 바스크 지방 고유의 전통 플루트인 틱추(Txistu)와 이 지역 고유의 양면 드럼인 탐볼리, 그리고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을 수록한 음반으로, 교향의 전통음악에 대한 작곡가의 진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바스크 지방의 대표적 전통음악가인 틱추의 명인 호세 이그나치오 안소레나가 특별히 녹음에 참여하였다.



KURT RO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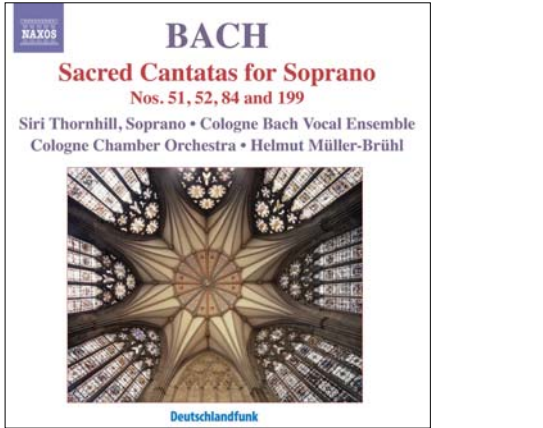
Clarinet Quintet

Piano Sonata • Piano Trio • Variations on an Irish Air
Benjamin Frith, Piano • Robert Plante, Clarinet
Lucy Gould, Violin • Alice Neary, Cello • Emily Beynon, Flute
David Adams, Viola • Mia Cooper, Violoncello

8.572238

로게르: 클라리넷오중주, 피아노소나타, 피아노트리오 외 굴드 피아노 트리오 로버트 플레인(cl) 외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쿠르트 로게르(1895-1966)는 후기 낭만주의의 모험적인 화성과 고풍스런 음악행식을 적절히 접목시켰던 인물이다. 그의 클라리넷 오중주는 브람스의 동일 형식의 작품에 버금가는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아일랜드 노래에 의한 변주곡의 서정미 역시 빼어나다. 빈 고전주의의 재현과도 같은 피아노트리오, 바로크와 낭만주의 그리고 근대음악의 여러 요소들이 혼합된 피아노소나타 등을 담았다.



BACH

Sacred Cantatas for Soprano

Nos. 51, 52, 84 and 199

Siri Thornhill, Soprano • Cologne Bach Vocal Ensemble
Cologne Chamber Orchestra • Helmut Müller-Brühl

8.570453

JS 바흐: 소프라노를 위한 칸타타 (BWV 51, 52, 84, 199) 시리 토른힐(sop)/ 헬무트 뮐러-브뤼hl/ 쾰른 챔버 오케스트라

바흐가 남긴 200편 가량의 교회 칸타타들 중에서 소프라노 독창을 위한 네 작품을 수록하였다. 솔로 소프라노와 트럼펫 독주가 비르투오소의 향연을 펼치는 51번 '만민이여, 환호하면 주를 맞으라',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1번 1악장을 신포니아로 전용한 52번 '거짓된 세상이여, 너를 의지하지 않으니', 애잔한 오보에 오블리가토가 인상적인 199번 '내 마음은 파바다를 건너', 84번 '나는 내 행복에 만족하나이다' 등을 수록.

2

아울로스뉴스 제 4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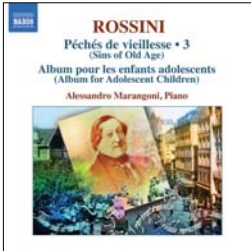
www.aulosmedia.co.kr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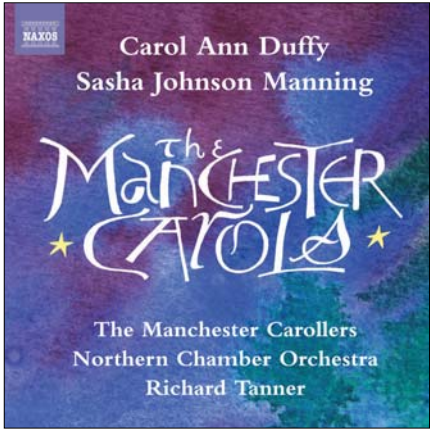
8.559629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미국 음악(번지, 모라벡, 샌포드, 로렘 외) 마야 마틴(f) 칼렛 발렌틴(pf)

다양한 개성을 지닌 8명의 미국 작곡가들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을 담았다. 미국 음악계의 중견 작곡가들인 폴 모라벡과 네드 로렘, 대중음악과 결합된 감각적인 작품세계로 주목받고 있는 젊은 작곡가들인 켄지 번지와 데이비드 샌포드, 각각 중국, 홍콩, 쿠바 출신인 첸 이, 멜리사 휘, 타냐 레온 등 작곡가들의 뚜렷한 개성만큼이나 다양한 플루트를 위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8.572315
로시니: 피아노작품집 Vol.6 (꽃나기 아이들을 위한 앨범) 알레산드로 마랑고니(pf)

로시니 피아노작품 시리즈를 통해 '아름다운 레가토 터치와 프레임에 대한 예리한 센스의 소유자'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알레산드로 마랑고니의 최신보. 로시니 만년의 작품집인 '노년의 잘못된' 중에서 '꽃나기 아이들을 위한 앨범'을 연주하였다. 사랑스런 뱃노래 '베니스의 개펄', 이국적인 '무어 전주곡',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멘델스존풍의 오마주인 '아! 완두콩!' 등 로시니 특유의 유쾌한 음악세계를 담았다.



8.572469
더피 & 맨닝: 맨체스터 캐롤스 더 맨체스터 캐롤러즈/ 리처드 탠너/ 노던 챔버 오케스트라

새로운 캐럴 연작인 맨체스터 캐롤스는 계관시인 캐롤 앤 더피의 시에 작곡가 샤샤 존슨 맨닝이 곡을 붙인 것으로, 찰스 디킨슨의 '크리스마스 캐럴'의 21세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를 구원하게 될 한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랑스런 노래들로 신자나 불신자나 관계 없이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아이템이 될 것이다.



8.570981
파니 멘델스존-헨젤: 가곡집 도로테아 크랙톤(sop) 바베트 도른(pf)

펠릭스 멘델스존의 누나인 파니는 클라라 슈만과 더불어 낭만시대를 대표하는 여류 작곡가로 손꼽히지만, 정작 작품을 접할 기회는 드물었다. 클라라 슈만의 가곡집을 선보였던 소프라노 도로테아 크랙톤이 파니 멘델스존의 가곡 시리즈를 시작하였다. 괴테, 하이네, 아이젠도르프와 같은 위대한 독일 낭만시인들의 시에 곡을 붙인 이 작품들에서 여성적 감성으로 충만한 로맨틱 리트의 묘미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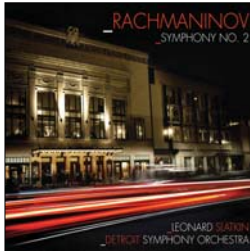
8.660268-69 [2CD]
J 슈트라우스 2세: 베니스에서의 하룻밤 여러 가수들 미카 아이헨홀츠 스톡홀름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1883년에 초연된 3막 오페레타인 '베니스에서의 하룻밤'은 '박쥐', '집시남작'과 더불어 작곡가를 대표하는 3대 오페레타로 꼽힌다. 삽입곡인 라군 왈츠와 산마르코 광장의 비둘기는 독립작으로도 자주 연주되는 인기곡들이다. 본 음반에는 2002년 스톡홀름 베르발트홀에서의 공연 실황인 오페레타 전곡과 함께 이 작품에서 발췌한 6곡의 관현악 리트의 묘미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8.660261-62 [2CD]
도니체티: 마리아 스튜아르타 여러 가수들 리카르도 프리차 마르키기아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마리아 스튜아르타'는 '안나 볼레나', '로베르트 데브루'와 더불어 도니체티의 여왕 3부작으로 불리는 작품이다. 파란만장한 생을 살다가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 참수되는 비운의 여왕 매리 스튜어트를 주인공으로 삼은 작품으로, 두 여왕 배역의 가수들이 펼쳐는 팽팽한 기싸움이 인상적이다. 본 음반은 2007년 이탈리아 마체라타에서 펼쳐진 스페리스테리오 오페라 페스티벌에서의 실황을 옮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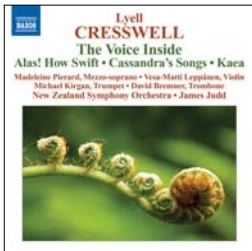


8.572458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보칼리스 레너드 슬래트킨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라흐마니노프는 교향곡 1번의 혹독한 실패 이후 한동안 쉽게 교향곡 분야에 손을 대지 못했다. 하지만 창고 끝에 완성한 교향곡 2번이 1908년 초연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특히 본 교향곡의 3악장의 로맨틱하기 이를 데 없는 선율은 에릭 칼멘의 히트곡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에 차용되면서 엄청난 대중적 인기를 누리기도 했었다.



8.572246
마이클 엉거 오르간 리사이틀 북스테후데, JS 바흐, 리타이체, 비도르, 메시앙
2008년 무사시노-도쿄 국제 오르간 콩쿠르 우승자인 캐나다 연주자 마이클 엉거의 독집 음반. 같은 해 미국 오르간 길드 콩쿠르에서도 우승했던 그는 도쿄 무사시노 시립 문화회관의 마르크젠 오르간의 화려한 사운드를 바탕으로 북스테후데의 전주곡과 바흐의 3개의 코랄 프렐류드, 비도르의 교향곡 7번 중 코랄, 메시앙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등의 종교적 영성으로 가득한 작품들을 연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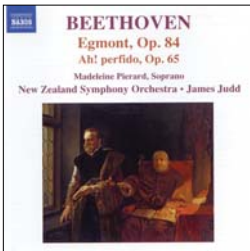


8.570824
크레스웰: 내면의 음성, 카산드라의 노래, 트럼본협주곡 '카에아' 마델레인 파에라드(ms) 베라 마티 레페넨(vn) 제임스 저드 뉴질랜드 심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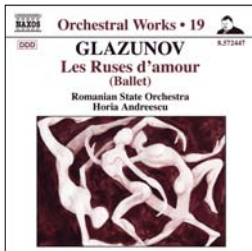
라이엘 크레스웰(1944년생)은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에딘버러를 중심으로 활동중인 작곡가다. 관현악 반주 위로 소프라노 솔로와 바이올린 솔로가 만들어내는 변화무쌍한 이중주가 인상적인 연가곡 '내면의 음성'과 스코틀랜드 시인 론 버틀린의 시에 곡을 붙인 '카산드라의 노래', 그리고 트럼본협주곡 '카에아'(마오리 족의 전투용 나팔의 이름) 등의 독특한 작품들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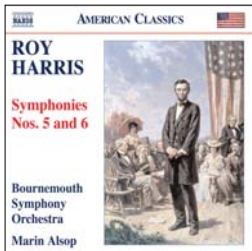
8.572189
메시앙: 3개의 멜로디, 하라위-사랑과 죽음의 노래 헤트나 레지 브룬(sop) 크리스토퍼 힐딕(pf) 메시앙의 연가곡들인 '3개의 멜로디'(1930년)와 '하라위-사랑과 죽음의 노래'(1945년)는 모두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비애감을 담은 작품들이다. '3개의 멜로디'는 어머니의 사망이, '하라위'는 첫 아내 클레어 델보의 죽음이 창작동기가 되었다. 개인적인 비극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들이지만, 메시앙 음악의 아름다운 듣는 이들을 희망과 초월의 세계로 인도하는 듯하다.



8.557264
베토벤: 에그몬트, 아 페리피도, 2개의 행진곡 마델라인 피에라드(sop) 제임스 저드 뉴질랜드 심포니
5번 교향곡의 완성 이후 베토벤이 매달렸던 것은 네덜란드의 독립영웅을 그렸던 괴테의 드라마 '에그몬트'의 극부수음악이었다. 지금은 서곡만이 널리 연주되고 있으나, 나머지 악장들에서도 최고조에 달했던 베토벤의 창작열을 느낄 수 있다. '에그몬트'와 비슷한 시기에 완성된 두 편의 행진곡과 이들보다 10여년 앞서 완성된 연주회용 아리아 'Ah! Perfido'가 함께 수록되었다.



8.572447
글라주노프: 발레 <사랑의 술책> 호리아 안드레스쿠 루마니아 국립 교향악단
글라주노프의 발레 '사랑의 술책'은 프랑스 로코코시대의 우아한 발레전통을 재현한 파스티셰 스타일의 작품이다. 이 작품의 화려하고도 세련된 오케스트레이션은 그의 스승이었던 관현악법의 대가 림스키코르사코프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사라방드', '파랑들', '마리오네트 댄스', '그랑 발스', '그랑 파드 피앙세', '라 프리카세' 등의 화려하고도 매력적인 춤곡들로 가득한 작품이다.



8.559609
해리스: 교향곡 5번, 교향곡 6번 '게티스버그' 마린 알습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미국의 위대한 심포니스트 로이 해리스가 2차대전 중에 완성한 독특한 성격의 교향곡 두 편을 함께 수록한 음반. 교향곡 5번은 '자유를 사랑하는 영웅적인 우리 법의 대가 림스키코르사코프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사라방드', '파랑들', '마리오네트 댄스', '그랑 발스', '그랑 파드 피앙세', '라 프리카세' 등의 화려하고도 매력적인 춤곡들로 가득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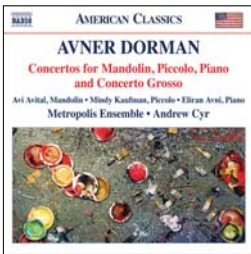


8.572205
마르티누: 피아노협주곡 3,5번, 피아노 콘체르티노 조르조 쿠쿨이(a) 아서 페이건 보후슬라브 마르티누 필하모닉
호평 속에서 마르티누가 남긴 피아노협주곡 전체를 녹음 완료한 피아니스트 조르조 쿠쿨이 그의 피아노협주곡들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작곡가는 모두 5번의 피아노협주곡을 남겼는데, 그중 가장 초기작인 콘체르티노와 전통적인 급완급 3악장 체제의 작품인 3번, 판타지아 콘체르타네타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마지막 5번을 함께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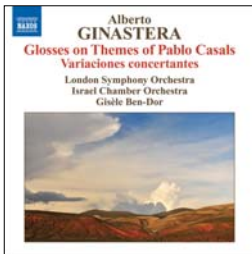
8.570585
크라우스:
〈카르타고의 아에네아스〉 관현악
발레
패트릭 갈리와
신포니아 핀란디아

크라우스는 하이든으로부터 진
정한 두 명의 천재(다른 한명은
모차르트)라고 칭송받았던 작곡
가로 스톡홀름을 기반으로 활동
하면서 스웨덴의 모차르트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최근 들어
그의 교향곡들이 고전교향곡의
숨겨진 걸작으로 재평가되면서
다른 장르의 작품을 역시 재조명
을 받기 시작했다. 본 음반에는
6악 구성의 장대한 서사 오페라
인 ‘카르타고의 아에네아스’에서
발췌한 관현악 하이라이트를 담
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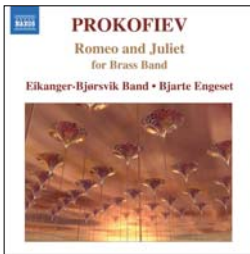
8.559620
도먼:
만돌린협주곡, 피아노협주곡, 피
콜로협주곡, 콘체르토 그로소
아비 아비탈(man)
엘리런 아브니(pf)
민디 카우프만(picc)
메트로폴리스 앙상블

아브너 도먼은 존 코렐리아노와
주빈 메타를 사사한 젊은 작곡가
로 재즈, 락, 월드뮤직 등의 다양
한 음악적 소재들을 네오 바로크
스타일의 작품으로 재창조해왔
다. 본 음반에는 20세 때의 작품
인 피아노협주곡 외에도 각각 만
돌린과 피콜로를 위한 두 편의
협주곡, 그리고 현악사중주와 하
프시코드를 콘체르티노 그룹으
로 내세운 콘체르토 그로소 등을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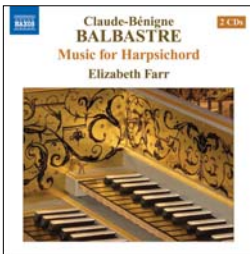
8.572249
히나스테라:
2세트의 카잘스 주제의 주석들,
협주변주곡
자젤레 벤-도르
런던 심포니, 이스라엘 챔버

히나스테라는 위대한 첼리스트 파
블로 카잘스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카잘스의 선율에 기초한
음악주석들(Glosses)을 완성하였
다. 원곡은 현악오중주와 현악합
주를 위한 곡이었으나, 후일 작곡
가 자신이 폴오케스트라를 위해
편곡하였다. 본 음반에는 두 가지
버전 모두를 수록되었다. 다양한
독주악기들의 기교적인 솔로가 연
이어지는 독특한 스타일의 작품인
Variaciones concertantes가 함
께 수록되었다.



8.572193
프로코피예프:
로미오와 줄리엣 (브라스앙상블
편곡)
비아르테 영에세트
에이랑거 보르스빅 밴드

러시아의 위대한 브라스 밴드 전
통에 기초하여 프로코피예프의
인기 발레작품인 ‘로미오와 줄리
엣’을 브라스 밴드와 타악기를
위해 편곡하였다. 연주단체인 에
이랑거 보르스빅 밴드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세 명의 편곡자
들이 참여한 이 작업은 섬세하면
서도 드라마틱한 원곡의 특징을
충실히 보존하면서도 브라스 앙
상블 특유의 강렬한 색채감을 덧
입혔다.



8.572034-35 [2CD]
발바스트르:
하프시코드를 위한 작품집 1권
엘리자베트 파르(cemb)
클로드 베니뉴 발바스트르
(1727-99)는 혁명 이전 프랑스
건반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의
한 사람이다. 스카를라티로 대표
되는 이탈리아 건반음악의 영향
을 기초로 자신만의 독특한 살롱
풍 소품들을 다수 작곡하였는데,
당시의 화려한 귀족문화에 걸맞
은 빼어난 매력을 보여준다. 자
신의 창작곡들 외에도 라모의 오
페라 ‘피그말리온’에서 발췌한
작품들의 건반편곡들도 함께 수
록되었다.



8.572256
**유대의 겨울나그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유대노래들)**
마크 그랑빌(br)
알렉산더 크납(pf)
유대의 겨울 나그네’는 오페라
가수이자 유대 전통 칸토르로도
활약중인 영국의 베이스 바리톤
마크 글랑빌과 피아니스트 알렉
산더 크납이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를 모델로 홀로코스트에
서 살아 남은 유대인 작곡가들의
작품과 유대 전통민요 등을 엮어
서 재창조한 일종의 파스티셰 연
가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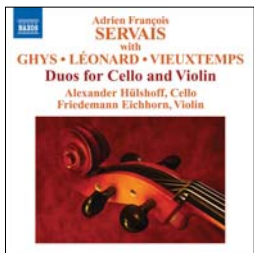


8.660257-58 [2CD]
도니제티:
루크레치아 보르지아
테오도시우, 데 비아시오 외
티치아노 세베리니
베르가모 도니제티 페스티벌

빅토르 위고의 희곡에 기초한 도
니제티의 오페라 ‘루크레치아 보
르지아’는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
라를 대표하는 걸작의 하나로 손
꼽힌다. 본 음반은 2007년
11/12월 베르가모의 도니제티 극
장에서 있었던 베르가모 음악축
제의 일환으로 칼라스의 뒤를 잇
는 그리스 출신의 대형 소프라노
디니트라 테오도시오우가 타이
틀 롤을 열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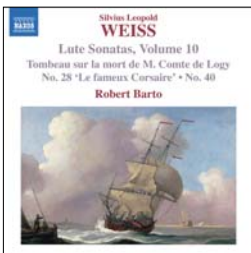


8.578007-08 [2CD]
Ultimate Chant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은 음악들)
Various Artists
각박하고 기계적인 현대일수록
영적인 것에 대한 갈구는 더욱
커져만 간다. 그레고리안 찬트에
대한 관심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현대인들의 지친 심신을 어루만
저줄 단선을 성가의 신비한 매력
을 2장의 CD에 가득 담았다. 낙
소에서 있었던 베르가모 음악축
제의 일환으로 칼라스의 뒤를 잇
는 그리스 출신의 대형 소프라노
디니트라 테오도시오우가 타이
틀 롤을 열연하였다.



8.572188
세르바이: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그랑 듀
오 (비외탕, 기, 레오나르)
프리데만 아이히호른(vn)
알렉산더 휘즐호프(vc)

첼로의 파가니니’라 불리던 세르
바이는 당대의 위대한 바이올리
니스트들인 기, 레오나르, 비외
탕과의 협업을 통해 바이올린과
첼로 이중주를 위한 6곡의 소품
들을 완성하였다. 영국국가, 마
이어베어의 오페라 ‘아프리카의
여인’과 ‘청교도’의 선율, 베토
벤의 테마 등에 기초한 변주곡과
포프리 스타일의 작품들로, 더블
스토핑, 하모닉스 등의 두 악기
모두의 현란한 연주기교를 요구
하는 화려한 작품들이다.



8.572219
바이스:
류트소나타 10집 (소나타 28,
40번, 로기 백작을 위한 통보)
로베르트 바르토(lute)

정상급 류트 연주자 로베르트 바
르토의 역작인 바이스의 류트 소
나타 시리즈가 어느덧 10번째
음반으로 이어졌다. ‘유명한 해
적’이라는 타이틀의 소나타 28
번과 40분 가까운 연주시간을
요구하는 대곡인 소나타 40번,
그리고 당시 ‘류트의 왕자’라 불
리던 요한 안톤 로기 폰 로진탈
백작을 위한 추도곡인 ‘로기 백
작의 죽음에 대한 통보’가 함께
수록되었다.



8.571274
라벨:
밤의 가스파르
스트라빈스키:
페트루쉬카 외
이딜 비렛(pf)

본 음 반 은 1976년 미 국
Finnadar 레코드를 통해 LP로
발매되었던 음원들을 최초로
CD발매한 것으로, 발매 당시 팜
파르나 스테레오 리뷰와 같은 미
국의 관련 저널로부터 극찬을 받
았던 비렛의 초기 레코딩이다.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에서는
절묘한 아티클레이션이, 스트라
빈스키의 ‘페트루시카’에서는 강
렬한 파워와 정교한 터치가 빛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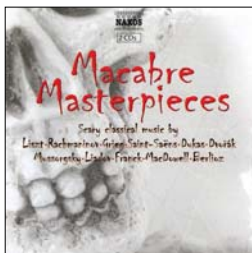
8.572150
블라스코 데 네브라:
건반소나타 3-6번
페드로 카잘스(pf)

마누엘 블라스코 데 네브라
(1750-1784)는 모차르트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스페인 작곡
가다. 본 음반에는 워싱턴 국회
도서관에 보관 중인 필사본에 수
록된 그의 소나타 4작품을 수록
하였다. 이들은 우아하고도 느린
1악장과 빠르고 기교적인 2악장
이 결합된 양악장 체제의 작품들
이다. 작곡가의 작품들을 부활시
킨 장본인인 피아니스트 페드로
카잘스의 연주로 고전시대 스페
인 건반음악의 색다른 매력을 만
나보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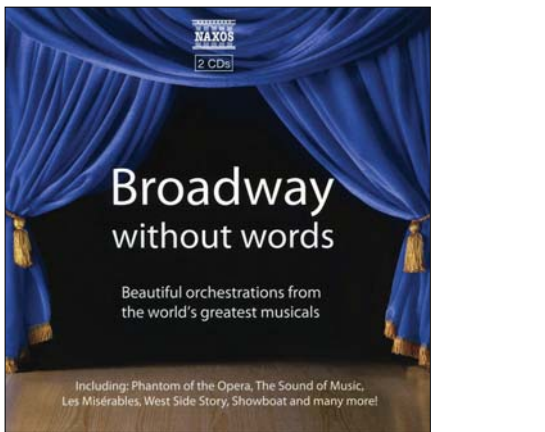
8.570154-55 [2CD]
Classics go to WAR
(전쟁음악 하이라이트)
Various Artists

바그너의 ‘발퀴레의 비행’(지옥
의 묵시록), 바버의 ‘아다지오’
(플레툼), 마이애스의 ‘카바티나’
(디아헌터), 포레의 ‘천국에서’
(썬 레드 라인) 등의 전쟁영화 배
경음악으로 유명해진 클래식작
품들과, 베토벤의 ‘웰링턴의 승
리’, 리스트의 ‘훈족의 전투’, 차
이코프스키의 ‘폴타바의 전투’
이폴리토프 이바노프의 ‘그루지
아의 전쟁 행진곡’, 글라주노프
의 ‘스테카 라친’ 등의 전쟁과
관련된 클래식 작품들을 함께 모
은 음반.



8.557930-31 [2CD]
Macabre Masterpieces
(죽음의 음악 걸작선)
Various Artists

김연아의 스케이팅 배경음악으
로 큰 사랑을 받았던 생상의 ‘죽
음의 춤’을 비롯하여, 무소륵스
키의 ‘민둥산의 하룻밤’, 리야도
프의 ‘바바야가’, 라흐마니노프
의 ‘죽음의 섬’, 맥도웰의 ‘마녀
의 춤’, 베를리오즈의 ‘단두대로
의 행진곡’, 아놀드의 ‘도깨비불
서곡’, 리스트의 ‘메피스토펠트
왈츠’, 그리그의 ‘산 마왕의 궁전’
등 그로테스크한 클래식의 대표
작품들을 골라 모은 음반.



8.578039-40 [2CD]
Broadway without Words (뮤지컬 관현악 하이라이트)
리처드 헤이먼
리처드 헤이먼 오케스트라
오페라의 유령’, ‘남태평양’, ‘왕과 나’, ‘키스 미, 케이트’, ‘웨스트 사
이드 스토리’, ‘사운드 오브 뮤직’, ‘애니’, ‘레미제라블’, ‘오콜라호매’
등의 브로드웨이 걸작 뮤지컬들에서 발췌한 귀에 익은 아름다운 선율들
을 리처드 헤이만의 감각적인 관현악 편곡과 연주를 통해 수록하였다.



Naxos Historical

www.naxos.com



8.111347
R. 슈트라우스:
4개의 마지막 노래, 오페라 하이라이트
리사 델라 카사(sop)
칼 뵘, 하인리히 홀라이저 외
빈 필하모닉

4개의 마지막 노래'의 역사적 명연이 마크 오버트 손의 뛰어난 복각을 거쳐 재탄생하였다. 역사상 가장 우아한 소프라노로 사랑받았던 리사 델라 카사의 절창과 최고의 슈트라우스 스페셜리스트 칼 뵘의 함께 만들어낸 이 음원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광휘를 잃지 않고 있다. 그와 함께 델라 카사가 노래한 '낙소스의 아리아드네', '카프리치오', '아라벨라'의 주요 아리아들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8.112031-32
푸치니:
마농 레스코 (2CD)
칼라스, 디 스테파노, 코스토 외
틀리오 세라핀
라 스칼라

칼라스, 디 스테파노, 세라핀 불세출의 황금 트리오가 만들어낸 역사적인 '마농 레스코'가 낙소스를 통해 복각되었다. 1957년에 녹음된 본 음원은 라 스칼라와 함께 한 칼라스의 마지막 레코딩들 중 하나로 강렬한 카리스마 대신 부드러운 서정으로 변신한 이 디바의 또 다른 일면을 보여준다. 디 스테파노가 노래한 푸치니의 아리아들이 부록으로 함께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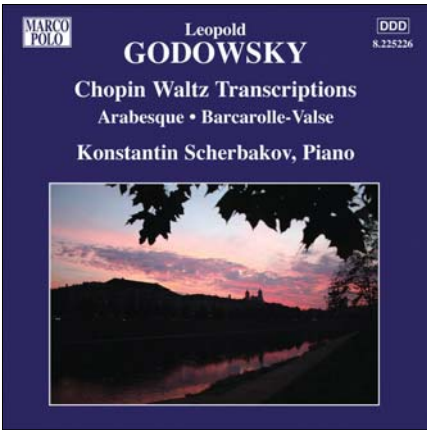
8.111343
버르토크:
콘트라스트, 랩소디 1번,
미크로코스모스 발췌
요제프 시게티(vn)
베니 굿맨(cl)
벨라 버르토크(pf)

버르토크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콜럼비아의 소중한 레코딩들이 복각되었다. 작곡가 자신의 피아노와 동향 출신의 절친한 동료였던 요제프 시게티, 재즈와 클래식 양쪽 분야 모두에서 맹활약했던 스윙의 제왕 베니 굿맨이 함께한 녹음들로 세 연주자들의 면면만으로 도 감지다. 특히 버르토크 자신이 연주한 미크로코스모스의 단편들이 눈길을 끈다.



Marco Po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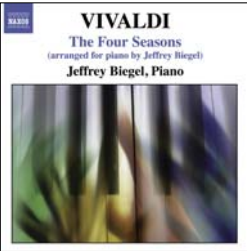
www.naxos.com



8.225226
고도프스키:
쇼팽 왈츠 편곡들, 피아노 소품들
콘스탄틴 셰르바코프(pf)

낙소스가 자랑하는 러시아 출신의 수퍼 비르투오조 콘스탄틴 셰르바코프가 진행중인 고도프스키 시리즈의 9번째 음반. 대왈츠 Op.18의 패러프레이즈를 비롯한 6편의 쇼팽 왈츠들의 화려한 콘서트용 편곡과 뱃노래-왈츠, 아라베스크, 왈츠-스케르초, 그랜드 로만틱 왈츠 등의 고도프스키 자신의 기교적인 춤곡 소품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Naxos Best



8.570031
비발디:
사계 (피아노를 위한 편곡)
제프리 비겔 (pf)

식상할 정도로 너무나 널리 알려진 비발디의 사계지만, 피아노의 통통 튀는 음색을 통해 구현되는 이 작품의 감흥은 신선하다. 85년 카멜 공쿠르와 89년 롱-티보 공쿠르를 석권했던 피아니스트 제프리 비겔이 사계전곡을 피아노를 위해 편곡하였다. 아울러 앤드류 젠타일이 편곡한 만들어진 협주곡 RV.425와 류트협주곡 RV.93도 함께 수록하였다.



8.572167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 9번
바실리 페트렌코
로알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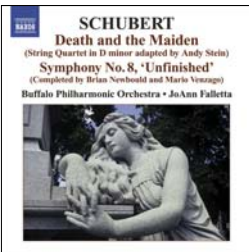
만프레드교향곡으로 2009년 그라모폰 관현악부문을 수상한 바실리 페트렌코와 로알 리버풀 필하모닉의 최신보. 11번에 이은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시리즈의 제2탄이다. 20세기에 완성된 교향곡의 최고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교향곡 5번과 신고전주의 스타일의 이야기자기한 작품인 교향곡 9번을 함께 수록하였다. 러시아 지휘자계보의 새로운 적통으

로 각광받고 있는 페트렌코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8.572082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1번 '1905년'
바실리 페트렌코
로알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영국 음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러시아 출신의 젊은 마에스트로 바실리 페트렌코가 교향곡 11번을 시작으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전곡 녹음에 돌입하였다. 굶주림을 호소하기 위해 왕궁으로 향하던 시위대에 차르의 친위대가 무차별 발포했던 1905년 피의 일요일 사건을 생생하게 음악으로 표현해낸 이 교향곡은 작곡가의 교향곡들 중에서 가장 격정적인 악상을 담은 작품으로 손꼽힌다.



8.572051
슈베르트:
죽음과 소녀 관현악편곡, 교향곡 8번 '미완성' 4악장 완결 버전
조안 팔레타
버팔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슈베르트의 인기 현악사중주인 '죽음과 소녀'는 말러에 의한 현악합주 편곡 또한 널리 알려져 있다. 본 음반에는 앤디 스테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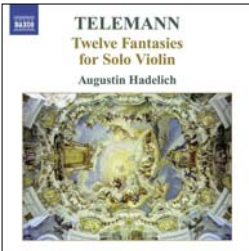
이 전형적인 로맨틱 교향곡의 형태로 편곡한 버전을 수록하였다. 또한 미완성교향곡의 4악장 완결 버전을 함께 수록하였다. 스케치만 남아있던 3악장을 브라이언 뉴볼트가 재구성하였고, 로자문데 간주곡 1번을 마지막 악장으로 대체한 형태다.



8.570440
리스:
피아노협주곡 7번, 롤 브리타니아 주제와 변주곡
크리스토퍼 힌터후버(pf)

우베 그로트
로알 리버풀 필하모닉

본 음반에 수록된 3작품은 베토벤의 애제자였던 리스가 영국에서 체류하던 시절에 완성된 것들이다. 제목 그대로 런던에서의 마지막 콘서트를 위해 완성한 작품인 피아노협주곡 7번 '영국에서의 고별 콘서트' 외에도, 영국의 국민가요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노래 'Rule Britannia'의 선율에 의한 변주곡, 그리고 역시 당대의 인기가요였던 'Soldier, will you marry me?'의 선율에 의한 서주와 변주곡을 수록하였다.



8.570563
텔레만: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12개의 판타지
아우구스틴 하델리히(vn)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텔레만의 12개의 판타지는 바흐의 소나타와 파르티타에 비견될 만한 빼어난 작품이다. 아마추어 연주자나 급습용 작품으로 기획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단 한 대의 바이올린만으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시험한 경이로운 걸작이다. 2006년 인디애나폴리스 콩쿠르 우승자인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의 정교한 기교가 이 걸작의 완성도를 더욱 드높였다.



8.572078
후바이:
바이올린협주곡 1, 2번 외
클로에 한슬립(vn)
앤드류 모렐리아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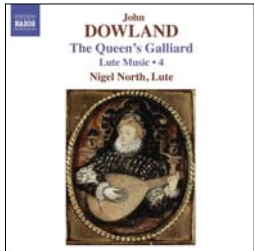
존 아담스와 고다르의 바이올린 협주곡 음반들로 음악인들을 넘어서서 원숙한 음악연주자로 자신의 위상을 재정립한 클로에 한슬립의 최신보. 세기 전환기의 걸출한 비르투오조 겸 작곡가였던 예노 후바이의 로맨틱한 바이올린협주곡 두 작품(특히 느린 악장들이 빼어나다.)과 그의 가장 널리 알려진 바이올린 쇼피스 이자 조국 헝가리의 민족색이 물씬 배어나오는 작품들인 'Scene de la csarda' 3,4번을 함께 수록하였다.



8.570400
보테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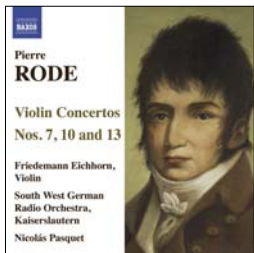
몽유병여인 환상곡, 베니스축제 변주곡, 알라 쇼팽, 바흐 편곡 외 토마스 마틴(db)
안소니 할스태드(pf)
재클린 푸겔(sop)

더블베이스의 파가니니로 불리던 조반니 보테시니는 이 거대한 악기가 멋진 독주악기가 될 수 있음을 확실히 증명해준 음악가였다. 본 음반에는 벨리니의 오페라 '몽유병의 여인'의 선율을 차용한 환상곡, 유명한 베니스의 카니발 선율에 의한 전주곡과 변주곡, 쇼팽 풍의 카프리치오,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의 편곡, 스코틀랜드 민요 'auld robin gray' 선율에 의한 변주곡 등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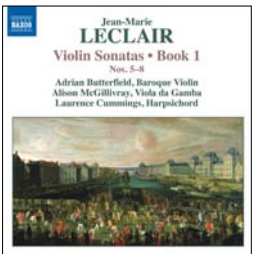
8.570284
다울랜드:
루트 작품집 Vol.4 (Queen's Galliard)
나이젤 노스(lute)

열렬한 호평 속에 진행되었던 나이젤 노스의 다울랜드 루트 독주곡 시리즈의 4번째 이자 마지막 음반. 영국이 자랑하는 이 루트의 대가는 본 시리즈를 통해 유수의 음반전문지들의 극찬을 이끌어내었다. 본 음반에는 유명한 'Go from my window' 외에도, 엘리자베스 여왕, 프란시스 월싱엄, 존 사우치, 프란시스 월러프비와 같은 당대 유명인들과 관련된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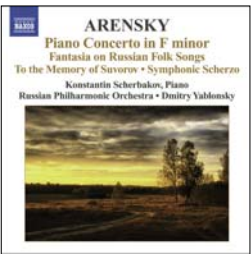
8.570469
로드:
바이올린협주곡 7,10,13번
프리데만 아이호른(vn)
니콜라스 파스쿠엣
카이저스라우테른 SWR 방송

비외티의 제자인 피에르 로드는 19세기 초반 프랑스를 대표하는 바이올린의 거장이었다. 그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24개의 카프리치는 파가니니의 작품과 쌍벽을 이루는 작품으로 유명하며, 자신의 화려한 초절기교를 과시하기 위한 바이올린협주곡들도 13곡이나 남겼다. 특히 협주곡 7번은 비에니아프스키가 특히 사랑했던 작품이며, 파가니니 역시 이 작품을 즐겨 연주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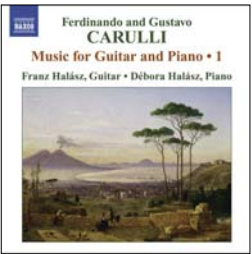
8.570889
브클레르:
바이올린소나타 Op.1 Nos.5-8
애드리언 버터필드(vn)
앨리스 맥길리브레이(vc)
로렌스 커밍스(cemb)

영국의 대표적인 시대악기 연주자들인 버터필드, 맥길리브레이, 커밍스가 프랑스 바로크 바이올린의 거두인 르클레르의 바이올린 소나타에서 호흡을 맞추었다. 당시 프랑스를 지배하던 코렐리 스타일을 벗어버린 것으로 평가되는 이들 소나타들은 작곡가 특유의 풍부한 장식과 아름다운 서정, 그리고 백파이프 사운드나 스코틀랜드 피들을 연상케 하는 목가적인 분위기가 절묘하게 결합된 매력적인 작품들이다.



8.570526
아렌스키:
피아노협주곡, 러시아민요 환상곡, 심포닉 스케르초 외
콘스탄틴 셰르바코프(pf)
드미트리 야블론스키
러시아인 필하모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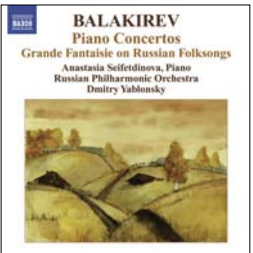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제자였던 아렌스키는 러시아 민족주의 계열의 마지막 가장 작곡가이자, 스코라빈, 라흐마니노프 등을 배출했던 명교사였다. 젊은 시절의 작품인 피아노협주곡은 리스트의 초절기교와 쇼팽의 서정성을 적절히 겸비한 작품이며, 러시아 민요 환상곡은 민족주의 작곡가로서의 그의 진면목을 담은 작품이다. 크림전쟁의 영웅 수포로프 장군을 기념하는 관현악 소품도 함께 수록되었다.



8.570587
F. 카롤리 & G. 카롤리:
기타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
프란츠 할라스(guitar)
데보라 할라스(pf)

나폴리 출신의 작곡가 페르디난도 카롤리가 완성한 기타 교본은 오늘날까지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베토벤의 '마술피리' 선율에 의한 변주곡을 기타와 피아노를 위해 편곡한 버전과 로시니 선율에 의한 이중주, '비단사다리', '아르미다', '세비야의 이발사' 등의 로시니 오페라 서곡의 편곡

등을 수록하였다. 일부 작품은 아들 구스타보 카롤리와 공동작곡한 것들이다.



8.570396
발라키레프:
피아노협주곡 1, 2번, 러시아 민요 대환상곡
아나스타시아 세이페치노바(pf)
드미트리 야블론스키
러시아인 필하모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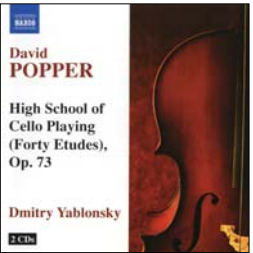
발라키레프는 러시아 5인조의 리더로 유명함에도 정작 그의 작품은 '이슬라메이' 정도만이 잘 알려져 있다. 발라키레프가 남긴 두 피아노협주곡은 그가 작곡가 이기에 앞서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다는 동료 림스키코르사코프의 회고를 증명해준다. 협주곡 2번은 미완성작으로 남아있었으나, 후배 리아푸노프가 훌륭히 마무리지었다. 러시아 민요 선율에 의한 대환상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0754
슈베르트:
플루트를 위한 편곡들 (아르페지오네소나타와 가곡들)
우베 그로트(fl)
마테오 나폴리(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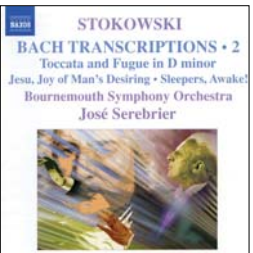
슈베르트는 당대의 플루트 비르투오조 페르디난트 보크너를 위해 자신의 연가곡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의 선율을 차용

한 변주곡을 완성하였다. 여기에 근대 플루트의 아버지인 테오발트 뱀이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해 편곡한 '겨울나그네'와 '백조의 노래' 중 6곡과, 연주자 우베 그로트가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해 편곡한 아르페지오네소나타가 함께 수록되었다.



8.557718-19 [2CD]
포퍼:
무반주 첼로를 위한 고등 연습곡들 Op.73
드미트리 야블론스키(vc)

다이비트 포퍼는 동시대의 리스트가 피아노를 통해 이루었던 업적을 첼로를 통해 구현했던 거물 연주자 겸 명교사였다. 무반주 첼로를 위한 40곡의 연습곡들로 구성된 '첼로 연주를 위한 고등 연습곡'은 첼로 연주자들의 필수 교본으로 인식되어왔던 작품집이다. 파블로 카잘스가 '이 악기를 위해 이보다 더 나은 작품을 쓸 수 있는 작곡가는 없을 것이다'라고 단언했을 정도로 첼로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



8.572050
바흐-스토코프스키:
관현악편곡들 (바흐, 하이든, 보케리니 외)
호세 세레브리에르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스토코프스키가 모던 오케스트라 편성을 위해 편곡한 바흐의 작품들을 담은 두 번째 음반. 유명한 '토카타와 푸가 D단조',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있어', '내 주는 강한 성',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시실리아노'와 같은 주옥같은 바흐의 선율들이 스토코프스키의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펼쳐진다. 클라크의 '봉헌', 보케리니의 '미뉴엣', '하이트의 '안단테 칸타빌레'와 같은 친근한 곡들의 편곡도 함께 수록되었다.



8.570993
드뷔시: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심포니, 야상곡, 월광 외
윤 메르클
리옹 국립 오케스트라

드뷔시의 대표관현악곡 중 하나인 '야상곡'은 바다에 비친진 구름의 이미지, 브와 드 볼로뉴의 축제, 사이렌들이 부르는 유혹의 노래를 각각 표현한 3개의 악장들로 구성되었다. 작곡가의 유일한 오페라의 선율들을 갈무리한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심포니, 앙드레 카를레가 편곡한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 '월광', 미카엘 자렐이 편곡한 3개의 연습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0747
클라라 슈만: 가곡 전집
도로테아 크랙스톤(sop)
헤다예트 데디카르(fp)

클라라 슈만은 뛰어난 피아노 비르투오조였을 뿐만 아니라 재능있는 작곡가였다. 그가 남긴 가곡들은 종종 남편의 것으로 오해될 만큼 빼어난 완성도를 자랑한다. 본 음반에는 로베르트와의 결혼 전부터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기 직전인 1853년까지 그가 완성한 가곡 모두가 수록되었다. 소박한 포르테피아노 반주 위로 펼쳐지는 도로테아 크랙스톤의 아가자기한 가창은 클라라의 섬세한 감수성을 훌륭히 대변한다.



8.571256
베토벤-리스트:
교향곡 4,5번 (피아노편곡)
이딜 비렛(pf)

EMI elctrola 음원의 재발매. 음악에 완전히 몰입된 이딜 비렛의 연주를 감상해보라. 특히 교향곡 4번의 마지막 악장에서 그의 연주는 최고로 빛을 발한다. 요제프 크립스와 콘체르트헤보우가 만들어내었던 고전적인 해석의 거울상을 여기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 하이파이 뉴스 -



8.571270
슈만 & 그리그:
피아노협주곡
이딜 비렛(pf)
안토니 비트
빌켄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터키의 국보급 피아니스트이자 낙소스의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핵심 아티스트로 활약해왔던 이딜 비렛이 로맨틱 피아노협주곡의 대명사와도 같은 걸작들인 슈만과 그리그의 피아노협주곡에 도전하였다.



8.570599
류재준:
신포니아 다 레퀴엠, 바이올린 협주곡
김인혜(sop), 김소옥(vn)
루카스 보로비츠 외
폴란드 방송교향악단 외

올해 서울국제음악제의 예술감독으로 임명된 작곡가 류재준은 폴란드의 세계적인 작곡가인 펜데레츠키를 사사하였다. 소프라노 독창과 합창을 필요로 하는 그의 '신포니아 다 레퀴엠'은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고 정주영회장을 추모하는 작품으로, 2008년 바르샤바 베토벤 페스티벌에서 초연되어 크게 호평을 얻었던 작품이다. 초연을 담당했던 김인혜 서울대 교수가 음반 녹음에도 함께 하였다.



8.572306
가브리엘 비앙코 기타 리사이틀
메르츠: 기타 소품들
JS 바흐: 소나타 BWV1005
코쉬칸: 기타 소나타

2008년 미국 기타 재단 콩쿠르
우승자인 프랑스의 젊은 기타리
스트 가브리엘 비앙코의 녹소스
데뷔 리사이틀 음반. 요한 카스
파르 메르츠의 사랑스러운 소품
들인 '눈물의 찬가', '카프리치
오', '타란텔라', '엘레지', '헝가
리 환상곡', 그리고 JS 바흐의
무 반 주 바이올린 소나타
BWV1005의 기타 편곡, 러시아
의 기타 대가였던 니키타 코쉬칸
이 작곡한 기타소나타로 프로그
램을 구성하였다.



8.111352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
초기 레코딩
슈만: 판타지슈튀케, 유모레스크
슈베르트: 즉흥곡, 악흥의 순간 외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러시
아 피아니스트인 스비아토슬라
브 리히터의 4/50년대 레코딩들
이 녹소스를 통해 복각되었다.
48년 녹음인 슈만의 판타지슈튀
케 발췌, 50-52년 녹음들인 슈
베르트의 악흥의 순간 1번과 즉
흥곡 Op.90-2와 Op.142-2, 그
리고 쇼팽의 연습곡 Op.25-5,
마지막으로 56년 녹음인 슈만의
유모레스크 Op.20이 수록되었
다.



8.111340
나폴리 송 (오 솔레 미오, 돌아오
라 소렌토로, 산타 루치아 외)
주제페 디 스테파노(te)
디노 올리베레리
오케스트라

칼라스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2
차 대전 후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명테너였던 주제페 디 스테파노.
그의 감미로운 음성과 유연한 가
창은 오페라 아리아 뿐만 아니
라, 나폴리 민요들에서도 두각을
드러내었다. 카푸아의 '오 솔레
미오', 코트라우의 '산타루치아',
쿠르티스의 '돌아오라 소렌토로'
등등 우리에게도 너무나 친근한
나폴리의 노래들을 디 스테파노
의 멋들어진 노래로 수록한 음
반.



8.111284-85 [2CD]
벨리니:
몽유병의 여인 (1957년 녹음)
마리아 칼라스, 피오렌차 코스
토, 니콜라 몬티
안토니오 보토
라 스칼라

1957년 안토니오 보토의 지휘봉
아래 칼라스가 녹음한 벨리니의
'몽유병의 여인'은 오랜 기간 동
안 필적할 만한 대상이 없는 최
고의 명반으로 사랑받았다. 소녀
시절부터 아미나라는 캐릭터에
매료되었던 칼라스는 이 음반을
통해서 최적의 여주인공상을 연
기해내었다. Eb의 고음에서도
기막힌 디미우엔도의 묘미를 보
여주는 'ah non giunge'를 비
롯하여 이 가수의 위대함을 확인
케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자리잡
았다.



8.111332-33 [2CD]
푸치니:
라보엠 (1956년 녹음)
마리아 칼라스, 주제페 디 스테
파노, 안나 모포
안토니오 보토
라 스칼라

마리아 칼라스는 1956년 라 스
칼라와 더불어 라보엠의 녹음을
남겼지만, 무대 위에서 라이브로
는 이 오페라를 노래한 기록이
없다. 칼라스가 이 오페라를 멀
리하게 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건 이 레코딩을 통해 확인되
는 그의 미미는 각별한 매력이
있다. 최상의 파트너 디 스테라
노가 노래한 로돌포와 안나 모포
의 무제타, 그리고 파네라이의
마르첼로 역시 나무랄 곳 없다.



8.111334-35 [2CD]
푸치니:
투란도트 (1957년 녹음)
마리아 칼라스, 엘리자베트 슈바
르초코프
틀리오 세라핀
라 스칼라

1957년 칼라스가 타이틀롤을 노
래한 투란도트는 호불호가 확연
히 갈리는 레코딩이지만, 이 위
대한 오페라의 연주사에서 빼놓
을 수 없는 레코딩임에는 분명하
다. 얼음과도 같은 투란도트의
이미지를 강렬한 카리스마로 담

아낸 칼라스의 연기와 함께, 슈
바르초코프의 류와 차카리아의
티무르도 이름값에 걸맞은 활약
을 보여주는 반면, 에우제니오
페르난디의 칼라프는 많은 아쉬
움을 남긴다.



8.111004
베버:
마탄의 사수 서곡, 무도회의 초대
멘델스존:
한여름밤의 꿈 발췌 외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푸르트벵글러의 2/30년대 초기
레코딩을 수록한 세번째 음반.
베버와 멘델스존의 인기 관현악
들을 수록하였다. 35년 녹음인
마탄의 사수 서곡, 32년 녹음인
무도회의 초대, 30년 녹음인 핑
갈의 동굴, 29년 녹음인 한여름
밤의 꿈 발췌, 그리고 30년 녹음
인 베를리오즈의 라코치행진곡
을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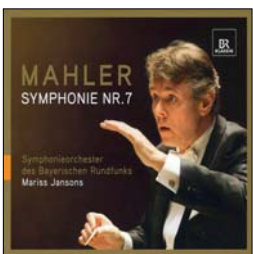


8.112020
쇼팽:
피아노소나타 2번, 발라드 3번
슈만: 카니발 외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pf)

라흐마니노프는 작곡가이기에
앞서 20세기 초기를 대표하는
건반 위의 위대한 비르투오조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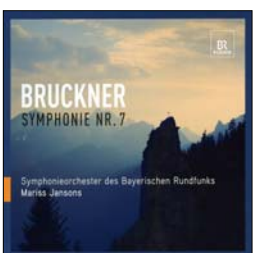
다. 본 음반에는 1925년에서
1942년 사이 라흐마니노프가 녹
음한 피아노 독주곡들이 수록되
었다. 쇼팽의 소나타 2번과 발라
드 3번, 야상곡 Op.9-2와 왈츠
들, 그리고 슈만의 카니발 전곡
등을 만나볼 수 있다.

BR Klassik Best



403571900101
말러:
교향곡 7번 (Hybrid-SACD)
마리스 안손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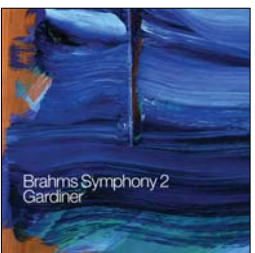
밤의 음악'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독특한 뉘앙스의 2,4악장이 인상
적인 말러의 교향곡 7번은 오케
스트라 단원들의 정교한 개입기
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작품으로
손꼽힌다. 2007년 3월 8/9일
뮌헨 가스타익 필하모니에서의
실황을 편집수록한 이 음반은 독
일 최정상급 악단으로서의 바이
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위상을 뚜
렷히 보여준다. 미스테리한 이
괴작을 일목요연하게 풀어나가
는 안손스의 해안 역시 출중하
다.



403571900100
브루크너:
교향곡 7번 (Hybrid-SACD)
마리스 안손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2007년 11월 4일 빈 무지크페라
인에서 있었던 실황을 옮긴 음
반. 브루크너의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손꼽히는 이 작품을
통해 최근 이 작곡가에 몰입하고
있는 안손스의 열정이 생생하게
전달되어 온다. 안손스가 정성껏
다듬어낸 치밀한 디테일과 바이
에른 방송교향악단의 묵직한 울
림이 빛어낸 작품의 장엄한 위용
이 멋진 조화를 이룬 쾌연이다.
1885년 노바크판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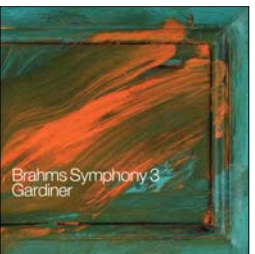
SDG Best



SDG 703
브람스:
교향곡 2번, 알토렐소디
슈베르트-브람스:
타타르인의 무리, 마부 크로노스
에게
슈베르트: 물 위의 정령의 노래
나탈리 스투츠망(alt)
존 엘리엇 가디너
몬테베르디 합창단
낭만과 혁명 오케스트라

낭만과 혁명 오케스트라의 브람
스 시리즈의 두 번째 음반. 교향
곡 2번을 담고 있는 이번 신보는
브람스의 음악에 내재된 슈베르
트의 영향에 대한 가디너의 진지
한 고찰을 보여준다. 흑단과 같
은 짙은 음색의 소유자인 나탈리
스투츠망이 절절히 노래하는 알
토렐소디와 슈베르트의 합창곡
'물 위의 정령의 노래'를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두 작품 사이의 유
사한 정서를 비교해볼 수 있게끔
배려하였으며, 브람스가 관현악
반주의 남성합창곡으로 편곡한
슈베르트의 두 가곡 '타타르인의
무리'와 '마부 크로노스에게'에
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두 작곡가
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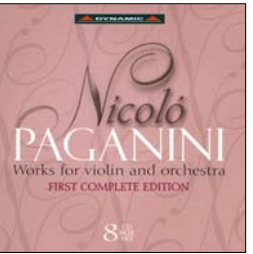
SDG 704
브람스:
교향곡 3번, 합창음악(운명의 노
래, 내니, 하프소리가 울려 퍼지
고, 나의 뿔피리를 불며, 밤순찰
1, 사랑의 슬픔은 단조롭고)
존 엘리엇 가디너
몬테베르디 합창단
낭만과 혁명 오케스트라

가디너의 브람스 교향곡 시리즈
의 제3탄. 교향곡 3번은 초연 당
시 한스 폰 뷔로가 브람스의 '에
로이카'라고 극찬했던 작품으로,
영웅적인 호방함이 돋보이는 1,4
악장과 서정미의 극치를 보여주는
2,3악장이 만들어내는 절묘한
대비효과가 특히 인상적이다. 가
디너의 섬세하고도 유려한 연주
는 가을에 더할나위 없이 잘 어
울리는 브람스의 특유의 아련한
서정미를 한층 더 아름답게 풀어
내었다. 독일 문학의 양대거봉인
괴테와 실러의 텍스트에 각각 곡
을 붙인 '운명의 노래'와 '내니'
는 브람스가 위대한 합창음악 작
곡가였음을 보여주는 드라마틱
한 대작들이다. 하프 반주의 사
랑스러운 여성합창곡인 '하프소
리가 울려 퍼지고'와 중후한 아카
펠라 남성합창곡인 '뿔피리를 불
며'의 아귀자기한 매력도 놓칠
수 없다.



SDG 707 [2CD]
JS 바흐:
브란덴부르크협주곡 전곡
존 엘리엇 가디너
잉글리쉬 바로크 솔로이스츠
가디너가 이끄는 우수한 시대악
기 앙상블인 잉글리시 바로크 솔
로이스츠는 그동안 수많은 바로
크/고전 레퍼토리들을 꾸준히 음
반으로 남겨왔다. 하지만 이들의
방대한 디스코그래피에서 바흐
의 브란덴부르크협주곡은 그동
안 찾아볼 수가 없었다. 드디어
이들이 이 결작에 도전하였다.
가디너와 동료들은 2008년 12
월부터 2009년 1월에 걸쳐서 펠
쳐졌던 스피탈필드 페스티벌에
서 이 작품으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었고, 그 직후에 있
었던 파리과 런던에서의 콘서트
실황들이 이 음반에 수록되었다.
가디너는 여섯 협주곡 중에서
두 작품만 지휘하였고, 나머지
네 작품에서는 리더인 바이올리
니스트 카티 데브레체니가 악단
을 이끌었다.

Dynamic B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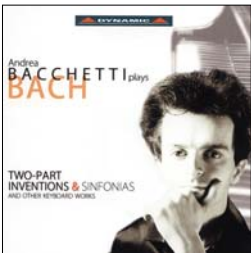


CDS 622/1-8 [8 for 3]
파가니니: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작품 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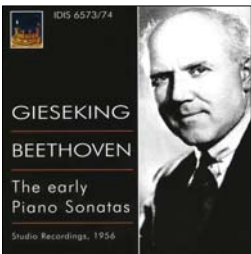
마시모 쿠키아타, 살바토레 아카르도, 에후디 메뉴헨, 루지에로 리치 외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파가니니의 모든 작품을 집대성한 음반. 91년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자인 마시모 쿠키아타가 독주를 맡은 바이올린협주곡 전집 외에도, 자타가 공인하는 파가니니 스페셜리스트인 살바토레 아카르도가 DG와 EMI에서 남긴 녹음들을 빌려왔으며, 메뉴헨이 몽퇴와 협연한 협주곡 1번의 34년 녹음과 루지에로 리치가 70년대에 연주한 협주곡 4번의 실황녹음과 같은 희귀 음원들도 함께 수록하였다.



CDS 629/1-2 [2 for 1]
JS 바흐:
2성부 인벤션과 신포니아 전곡외 안드레아 바게티(pf)

안드레아 바게티는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바흐 스페셜리스트이다. 그의 연주를 담은 골드베르크 변주곡 DVD(Arthaus)는 Classicstoday, Ritmo, BBC Music Magazine 등의 전문지들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본 신보에는 2성부 인벤션과 신포니아 전곡 외에도 프랑스 모음곡 6번, 파르티타 2번, 두 세트의 작은 전주곡(BWV933-943, 999) 등이 2장의 CD에 빼곡히 수록되었다.



IDIS6573/74 [2CD]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1-8번 발터 기제킹(pf)

1956년 발터 기제킹은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전곡녹음을 위해 런던으로 향하나, 도중에 갑작스런 발병과 때 이른 그의 죽음으로 이 프로젝트는 미완성으로 끝나고 만다. 본 음반은 당시 녹음이 완료되었던 초기 소나타 8작품을 2장의 CD에 나누어 수록한 것으로, 화려한 테크닉과 섬세한 서정을 겸비했던 이 위대한 피아니스트의 마지막 열정을 생생하게 전달해 준다.

Our Recordings Best



6.220601 [Hybrid-SACD]
카페 비엔나
(리코더와 기타를 위한 로맨틱 소품들)
미칼라 페트리(recorder)
라스 한니발(guitar)

리코더의 여왕 미칼라 페트리의 최신보. 남편 라스 한니발의 기타 반주와 더불어 19세기 빈에서 유행하던 아가자기한 소품들을 선보인다. 줄리아니의 그랑 듀엣

콘체르탄테, 카를리의 영국 국가에 의한 판타지, 퀴프너의 프랑스 국가에 의한 판타지, 사인디 엔슈트의 오스트리아 민요에 의한 변주곡, 마이제더의 베토벤과 로시니 주제의 포푸리, 베토벤의 두 소나티나 등등 리코더와 기타가 만들어내는 매력적인 소노리티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Dacapo Best



6.220562 [Hybrid-SACD]
로맨틱 바이올린협주곡
(가데, 랑에-윌러, 랑고르)
크리스티안 오스트란트(바이올린)
온 스토르고르
탐페레 필하모닉

덴마크 대표작곡가들의 로맨틱 바이올린협주곡들. 멘델스존과 슈만의 친구였으며, 그리그와 닐센의 스승이었던 가데의 작품은 당당한 스케일 속에 멘델스존을 연상케하는 로맨틱한 시정을 담았으며, 랑에-윌러의 작품은 가곡들을 통해 발취되었던 이 작곡가의 빼어난 선율감각을 엿볼 수 있다. 랑고르의 협주곡은 연주시간 10분 정도의 간결한 작품이지만 이 작곡가 특유의 독창적인 서법을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Wigmore Best



WHLive 0027
에바 포들레스 + 개릭 올슨
가곡 리사이틀
쇼팽, 라흐마니노프, 차이코프스키의 가곡들, 무소륵스키: 죽음의 춤과 노래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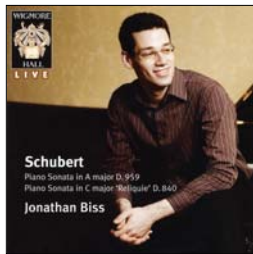
차이코프스키의 대표 가곡 '다만 동경을 아는 자만이' 수록,폴란드를 대표하는 알토 에바 포들레스와 1970년 쇼팽 콩쿠르 우승자인 개릭 올슨이 함께한 2008년 1월 23일 리사이틀 실황음반. 무소륵스키의 연가곡 '죽음의 노래와 춤'을 필두로, 쇼팽, 라흐마니노프, 그리고 차이코프스키의 대표가곡들을 망라하였고, 시마노프스키의 유명한 피아노독주곡 '마스크'를 함께 수록하였다.



WHLive 0028
멘델스존:
현악사중주 Op.44-2
모차르트:
현악사중주 K.465 '불협화음' 외
엘리아스 스트링 콰텟

엘리아스 콰텟은 2003년 런던 국제 현악사중주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후 영국 실내악계의 기대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젊은 앙상

블이다. 본 음반은 2008년 12월 29일 위그모어홀에서의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멘델스존의 아름다운 현악사중주 Op.44-2와 모차르트의 '불협화음' 현악사중주, 그리고 슈베르트의 Quartettsatz로 프로그램을 알차게 구성하였다.



WHLive 0030
슈베르트:
피아노소나타 D.840 & 959
조나선 비스(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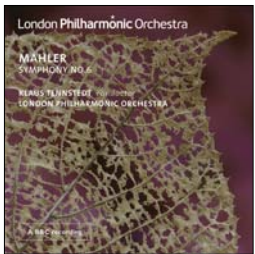
EMI를 통해 발매되었던 슈만 피아노작품집과 베토벤 소나타로 각각 디아파송 금상과 에디슨상을 수상했던 미국의 신예 피아니스트 조나선 비스의 2009년 5월 12일 위그모어홀 리사이틀 실황. 슈베르트가 만년에 남긴 대작인 D.959와 미완성소나타인 D.840 그리고 쿠르탁의 개성적인 두 소품으로 리사이틀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였다. 이 연주자의 자연스럽고도 천부적인 음악성과 잘 콘트롤된 기교를 생생하게 전달된다.

LPO Best



LPO-0026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루치아 폼(sop), 앤 머레이(ms), 앤소니 롤프 존스(te), 르네 파페(bass)
클라우스 텐슈테트
런던 필하모닉과 합창단

1992년 10월 8일 로얄 페스티벌 홀에서의 실황. 텐슈테트가 은퇴 직전 런던 필과 펼쳤던 최후 콘서트들 중 하나로 그의 진정한 거장상을 느끼게끔 하는 연주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추억의 이름이 되어버린 루치아 폼의 음성을 만날 수 있으며, 앤 머레이, 안소니 롤프 존스와 같은 영국 베테랑들과 막 세계무대로 부상하던 시절의 르네 파페의 묵직한 저성이 멋진 조화를 이룬다.



LPO-0038 [2 for 1.5]
말러:
교향곡 6번 '비극적'
클라우스 텐슈테트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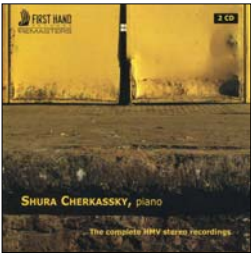
말러는 자신의 교향곡 6번의 피날레를 두고 '세번에 걸친 운명의 타격을 받은 영웅이 마침내 고목이 쓰러지듯 쓰러진다'고 묘사하였다. 1983년 8월 22일 로얄 알버트홀에서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본 신보에는 위대한 말러리안이었던 클라우스 텐슈테트의 선 굵은 말러관이 멋지게 투영되었다. 스튜디오에서보다 콘서트 실황에서 자신의 진가를 십분 발휘했던 이 거장의 고출력 연주를 만나보시라.



LPO-0039 [2 for 1.5]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1번 '겨울의 백일몽', 6번 '비창'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08년 내한연주를 통해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던 런던 필의 뛰어난 기능성과 이들의 젊은 수장인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의 강렬한 카리스마를 다시금 만끽하게 되는 음반이다. 각각 2008년 10월 22일(교향곡 1번)과 11월 26일(교향곡 6번) 있었던 역면가 100%의 콘서트 실황들로, 특히 6번 '비창'은 내한연주 때의 감동을 간직하고 있는 애호가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다.

First Hand Best



FHR04 [2CD]
슈라 체르카스키
HMV 스테레오 레코딩 전집
쇼팽, 베토벤, 리스트, 라흐마니노프, 거쉰, 생상-고도프스키, 폴랑 외

가장 시대의 향수를 담았던 마지막 연주자 슈라 체르카스키. 그가 1950년대 중반에 남겼던

HMV의 스테레오 녹음들이 퍼스트 핸드 레이블을 통해 복원되었다.

"오리지널 마스터 테이프의 느낌을 그대로 살린 최고수준의 복각. 손톱의 타건음과 미세한 타건의 여운 및 피아노의 배음까지도 들릴 정도로 복각상태가 훌륭하다. 섬세한 질감의 하늘거림이 숨막힐 정도인 생상-고도프스키의 백조,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들은 스승 호프만을 연상시킬 정도로 박력있고 엄격하며 폭발적이다. 고전적 자태를 뽐내는 베토벤 바가텔 1번, 흠뻑러지는 낭만적 리시시즘으로 가득 찬 슈베르트 즉흥곡 4번, 아름다운 서정성과 영동한 시성으로 가득 찬 쇼팽 발라드 3번은 역사적인 레코딩 가운데 하나로 꼽힐만하다." - 라 무지카 9월호 음악 컬럼니스트 박제성

Phoenix Best



Phoenix 177
C. 슈타미츠 & J. 슈타미츠:
클라리넷협주곡
한스 다인처, 안 겐겔(cl)
가브리엘레 페로
울프 비외를린
카펠라 콜로니엔시스

요한 슈타미츠는 초기 고전 교향곡의 선각자이자, 클라리넷을 본격적으로 활용했던 작곡가였다. 역시 뛰어난 작곡가였던 그의 큰 아들 카를이 2대의 클라리넷을 위해 완성한 협주곡과 오케스트랄 콰텟을 함께 수록하였다. 자비네 마이어 남매, 마틴 프리스

트, 앤드류 매리너 등 현재 활약 중의 정상급 클라리넷 연주자들을 두루 배출했던 명교사이자 솔리스트로서도 맹활약했던 한스 다인처가 독주를 맡았다.



416 [3 for 2]
프랑스 발레 걸작선
(코펠리아, 실피드, 지젤, 실비아, 신데렐라 외)
네빌 매리너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드, 하인츠 프리케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들리브의 앙대 발레 걸작인 '코펠리아'와 '실비아', 프랑스 로 맨틱 발레의 대명사와도 같은 작품인 아담의 '지젤', 로이 더글라스가 쇼팽의 유명한 피아노곡들을 관현악으로 편곡하여 구성한 '실피드', 유명한 페로의 동화를 소재로 한 마스네의 '신데렐라', 드뷔시의 어린이를 위한 아기자기한 발레작품인 '장난감 상자' 등등 낭만 및 근대의 프랑스 발레 걸작들의 하이라이트들을 가득 모은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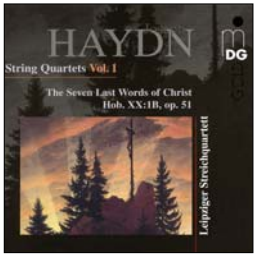
MDG Best



906 1547-6
MD&G의 베스트 컬렉션

SACD 샘플러 Vol.2

디지털이 꿈꾸는 이상향, 궁극의 음향세계! 2008년 그래미 어워드 클래식 부문 최우수 녹음기술상에 빛나는 톤마이스터 황병준 씨가 추천하는 최고의 오디오파일 샘플러 음반.오디오 파일러들에게 사랑받았던 <Inspiration-영감의 음악들>에 이어지는 MD&G의 두 번째 Hybrid-SACD 샘플러 <Appassionato-열정의 음악들>이 출시되었다. 이번 두 번째 샘플러는 아울로스 미디어가 한국 애호가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MD&G의 음원들 중에서 직접 선곡한 트랙들로 구성되었다. 탁월한 음질, 치밀한 기획으로 클래식 음악 애호가를 매료시켜온 독일 최고급 레이블 엠데게(MDG)는 두 명의 패기 있는 톤마이스터가 창립한 회사다. 음향에 관한 기술이나 철학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회사. MDG의 성공비법은 아주 평범한 기초 위에서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연스러움'이다. MDG는 비록 디지털 음향이지만, 가장 실제 악기 소리에 가깝고, 가장 부드럽고 가장 자연스러운 음향을 담은 음반을 만드는 회사로 크게 어필했던 것이다. 자연스러움을 확보하기 위해 그들이 취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MDG는 스튜디오 녹음을 절대로 피하고, 종교음악의 경우는 유서 깊은 교회를 선택하고 실내악은 음향조건이 특별히 좋은 연주회장이나 고성에서 즐겨 녹음한다. 녹음 스튜디오는 음악을 경직되게 하고 천편일률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엠데게사는 어떤 음악이든지 잔향이나 공명이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늘 녹음환경 선택을 최우선 과제로 떠올린다.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이들에게 기계의 인공적인 조작이란 상상할 수 없는 것. 따라서 필드라든지 잡음소거장치를 쓰는 것은 물론, 녹음을 편집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용납하지 않는다.



907 1550-6 [Hybrid SACD]
**하이든:
십자가 위의 마지막 일곱 말씀
라이프치히 현악사중주단**

실내악 명가 MDG를 대표하는 현악사중주단이자, 독일을 대표하는 관록의 실내악단인 라이프치히 퀼텐이 하이든의 서거 200주기를 기념하여 그의 실내악 걸작인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일곱 말씀'을 선보였다. 사순절 기간동안 묵상을 위한 배경음악을 목적으로 완성된 이 걸작은 원래 관현악곡으로 작곡되었지만, 이후 현악사중주, 오라토리오, 건반작품과 같은 여러 버전들로 편곡되었다. 현재 가장 보편적인 버전은 현악사중주버전이다. 라히프치히 퀼텐의 진지한 연주는 이 걸작의 숭고한 감동을 더욱 진하게 만들어준다.



340 1529-2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19, 20번
크리스티안 차하리야스(pf, cond)
로잔 챔버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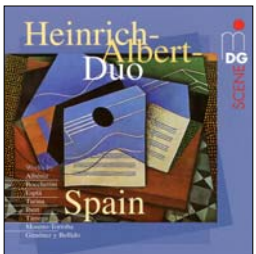
강력추천음반 Classicstoday 10/10, Diapason d'or 2007년 미렘 클래식에서 올해의 음악가상을 수상했던 독일의 중견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차하리야스의 최신보. 모차르트 협주곡 시리즈의 4번째 음반. 제네바 콩쿠르와 빈 클라이번 콩쿠르의 우승

자이자, 특유의 서정적이고도 정교한 연주로 많은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차하리야스의 미덕이 빛을 발한다. 특히 20번 협주곡의 유명한 로망스 악장을 아름답게 빛어내는 그의 깔끔한 터치가 빛난다.



341 1309-2
**모차르트:
작은별 변주곡, 피아노소나타 2번, 15번 외
지그베르트 램페(cemb, fp)**

당시의 여러 고전반악기들로 모차르트의 건반 작품 전체를 녹음 중인 지그베르트 램페의 8번째 음반. 1771년에 제작된 하프시코드의 또렷도량한 사운드로 빛어낸 변주곡 '아 어머니께 말씀드리조'('작은별 변주곡')가 각별하며, 역시 같은 하프시코드로 연주한 피아노소나타 2번도 신선하다. 피아노소나타 15번은 1795년에 제작된 포르테피아노의 복제품으로 연주되었다.



603 1535-2
**기타 듀오를 위한 스페인 음악들
(보케리니, 타레가, 투리나, 알베니스 외)
하인리히 알베르트 듀오**

두 대의 기타를 위한 스페인 작곡가들의 여러 작품들을 망라한 음반. 보케리니의 기타오중주

G448의 '판당고'나 사그레라스가 2대의 기타를 위해 편곡한 타레가의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과 같은 유명한 작품을 외에도, 투리나, 알베니스, 모레노-토로바 등의 스페인 작곡가들의 향토색 짙은 기타 작품들이 하인리히-알베르트 듀오의 열정적인 연주로 수록되었다.



301 1563-2
**노투르노
(기타가 포함된 실내악) - 크로이처, 디아벨리, 루돌프대공 외
소나 프룬바우어(기타)
콘소르티움 클라시쿰**

19세기 전반 비더마이어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타는 공개 콘서트에서는 서서히 도태되기 시작했지만, 가정음악회를 위한 실내악들에서는 여전히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본 음반에는 기타를 중심으로 하는 이 시기의 매력적인 실내악 작품 네 편을 담고 있다. 플루트와 클라리넷, 기타를 위한 요제프 크로이처의 삼중주, 보헤미아 작곡가 마티엑카의 클라리넷, 호른, 기타를 위한 노투르노, 플루트와 기타를 위한 디아벨리의 노투르노, 그리고 베토벤의 제자 겸 후원자로 유명한 루돌프대공의 작품인 클라리넷, 비올라, 바순, 기타를 위한 세레나데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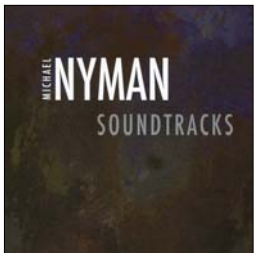
Capriccio Best



71020
**빈 소년 합창단 종교합창 걸작선
(Hybrid-SACD)
할렐루야, 아베 베를, 아베 마리아, 모차르트 레퀴엠과 대관식 미사 발레 외**

헨델 메시아 중 '우리를 위해 한 아이가 나셨네', '할렐루야', 아멘 코러스, 모차르트 레퀴엠 중 진노의 날과 라크리모사, 대관식 미사 중 글로리아와 베네딕투스, 모차르트의 아베 베를, 슈베르트와 브루크너의 아베마리아, 하이든 천지창조 중 '하늘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와 '주의 선하심으로', 험퍼딩크 '헨젤과 그레텔' 중 저녁기도, 바흐 칸타타 BWV21 중 '내 영혼이 만족하며' 등을 빈 소년합창단의 노래로 담았다.

MN Records Best



MNRC202 [3 for 1.5]
**Michael Nyman Soundtracks
The Piano + the Libertine + Nyman Greenaway Revised**

마이클 니만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주었던 제인 캠피온 감독의 페미니즘 영화 '피아노'의 사운드트랙을 2005년에 재녹음한 음반과 니만의 오랜 동반자 피터 그리너웨이 감독과의 공동작업이었던 '프로스페로의 서재',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와 연인', '영국식 정원 살인사건', '차레로 익사시키기' 등에서 엄선한 베스트 사운드트랙음반, 그리고 살인마 잭 더 리퍼의 이야기를 다루었던 조니 뎀 주연의 2004년 영화 '리버틴'의 영화음악음반 등의 세 음반을 하나의 박스에 담았다.

Proprius B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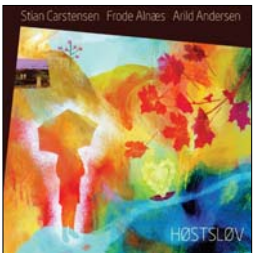
PRCD2045
**지구인
(그리고, 빅토리아, 린드베르크, 니스테트 등의 합창음악)
솔비에그 오그렌 스텔라 합창단**

베스트셀러 합창 음반들로 사랑받은 스웨덴의 오디오파일 레이블 프로프리우스에서 또 하나의 매력적인 합창음반을 선보였다. 르네상스 작곡가 빅토리아의 대표 모테트 'O Magnum Mysterium'에서부터 크누트 뉴스테트와 트론 쿠베르노 등의 스웨덴 현존 작곡가들의 종교합창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에 걸친 합창음악의 진수를 만날 수 있다. 그리그의 'Ave Maris Stella', 헨닝 슐메로의 걸작 합창곡 '그레고리오의 3개의 상념', 트론 쿠베르노의 'Corpus Christi Carol' 등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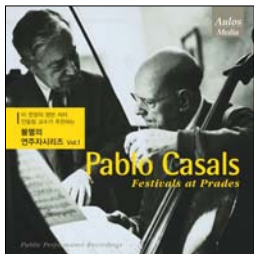
KKV Best



FXCD 221
**카리 브렌네스:
NORWEGIAN MOOD**
KKV 판매 차트 1위.
뛰어난 음질로 오디오파일 음반으로도 손색이 없다.



FXCD 311
**스티안 카르스텐센,
프로드 알네스, 아릴 안데르센:
Hostslov(가을 슬로우)**
가을의 빛깔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앨범. 프로드 알네스, 아릴 안데르센 그리고 스티안 카르스텐센. 여름노래와 크리스마스 캐럴을 아주 독특하게 연주해주더니, 이번에는 가을 노래들을 들고 나왔다. 기타, 베이스,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이 탁월한 음악가들은 음악적이면서도 친숙하고 매력적인 사랑의 음악들을 많이 연주해왔는데, '기억해 보세요(Try to remember)', '내 머리위에 빗방울은 계속 떨어지고', '그대의 배가 멀리 갈 수 있으면' 등 이번 음반도 놀라운 자체다. 가을날의 환상적인 안개풍경, 풍년을 알리는 황금 들녘,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냉혹한 바람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가을 빛깔을 내는 명곡들이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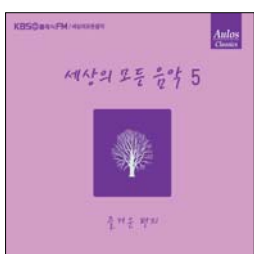
AMC2-102 [24CD for 2.5]
**카잘스 영혼의 대화:
프라드 페스티벌
안동립 교수가 추천하는
불멸의 연주자 Vol.1**
카잘스 예술의 찬란한 금자탑, 이제 이보다 놀라운 연주와 가격의 카잘스 박스는 없다. 거장이 피운 최후의 불꽃, 프라드 실험. 최 만년 은퇴를 결심했지만, 스페인 민족에 대한 사랑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 다시 첼로를 들었던 카잘스가 프랑스의 프라드에서 마지막 불꽃을 피우며 연주했던 기록들.



AMC2-104
**당신의 밤과 음악 Vol.3:
밤, 풍경속으로...**
마음을 길어 올리다... 트럼펫으로 연주하는 Vitae Lux에서 레슬리 가렛의 목소리로 들는 'Let it be'까지, 밤 풍경을 비추는 한 줄기 불빛처럼 평화와 안식의 불빛이 되어줄 이 음악들을 당신의 밤과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AMC2-101
**장대건 3집:
Azahar(아사하르)
- 19세기 기타 음악들**
기타의 본고장 스페인 Auditorio Municipal "Enrique Granados"에서 녹음한 한국 클래식 기타계의 든든한 미래인 장대건의 3집 앨범 'Azahar(아사하르)'. 그가 19세기 당대의 악기인 로만틱 기타로 연주하는 고전 및 낭만 시대의 주옥같은 기타 레퍼토리는 기타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AMC2-095
**세상의 모든 음악 5집:
즐거운 편지**
최고의 월드뮤직 컴필레이션 시리즈 [세상의 모든 음악] 그 다섯 번째 이야기... [즐거운 편지] 어느날 당신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음악은 쓰러지려는 당신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으며, 삶에 온기가 부족한 날 당신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줄 추억의 난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우표를 붙이고 가지 않아도 순식간에 도착하는 편지이며, 언제든 다시 열어볼 수 있는 즐거운 편지라는 것을...



AMC2-077
**세상의 모든 음악 4집:
그대, 황혼이면 돌아오듯이...**
저녁의 정서를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한 그루 든든한 나무가 되어 노을처럼 다양하고, 산속의 불빛처럼 위로가 되는 음악으로 황혼을 등에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돌아오는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수잔 치아니 [Turning], 데이비드 랜즈 [Return to the heart], 빌 더글라스 [Lake isle of Innistree], 로드 맥퀸 [And to the each season], 크리스 스피어리스 [Carino], 에릭 마페이 [Dimmi perches], 프란시스 고야 [How young we were], 나윤선 [아름다운 사람들] 총 16곡 수록!



AMC2-100
떠돌이별 임의진의 커피 여행
월드뮤직 스테디셀러 '여행자의 노래' 선곡자이며 작가, 화가, 음악가이기도 한 다중예술가 임의진이 고른 세상의 모든 커피 노래. 아프리카, 북남아메리카, 유럽, 중앙아시아, 러시아 대륙과 인도네시아 자바 섬, 동티모르까지 커피향이 스며든 노래들 총집합. Marc Black의 Ooh, I Love My Coffee(오! 내 사랑 커피), Lior이 부른 Bedouin song(베드윈의 노래), Donovan

이 존경하는 컨트리 가수에게 바친 새로운 버전의 The Mountain(산의 노래)은 보너스 트랙. 올해 최고 품질의 커피 맛 같은 음반, 귀로 마시는 커피 한 잔!



AMC2-017
**슈베르트: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다닐 사프란**
유려한 보잉, 뜨거운 정열의 연주. '아르페지오네를 위한 소나타'는 슈베르트가 슈타우퍼의 발명품인 '아르페지오네(arpeggione)'란 악기를 위한 작곡이었지만, 현재 우리는 사프란의 음반처럼 첼로로 연주한 음반들을 자주 만난다. 물론 정격 음악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프란의 연주는 구식이라고 볼 수 없는 장점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 나긋나긋하고 유려한 보잉, 풍성하게 넘치는 정열로 슈베르트의 연듯빛 감성을 예민하게 그려내고 있는 이 명연주는 함께 수록된 프랑크와 드뷔시의 첼로 소나타와 함께 그의 본령이 목격한 독일 음악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다.



AMC2-103
**당신의 밤과 음악 Vol.1:
잊혀지는 것과
잊혀지지 않는 것...**

잊혀지는 것과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이루고 있습니다. 밤의 휴식, 밤의 위로가 없었다면 이 복잡하고 힘겨운 세상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한 묶음의 첼표가 머리말에 놓여있는 밤 바순의 따뜻한 음으로 시작되는 '당신의 밤과 음악'의 시그널을 들으면 먼 여행에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이 음반을 '다시' 바칩니다.



AMC2-079
**법정스님 오디오북:
연꽃 향기를 들으면서
(김세원 낭독)**
지친 우리들의 영혼이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우리 시대의 존경 받는 어른 법정 스님과 우리 시대 최고의 목소리 김세원의 만남. 무소유의 행복을 설파하는 법정스님의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향해 피워올리는 한 송이 연꽃 같은 오디오북. 법정스님이 전하는 삶의 이정표로 아주 귀중한 말씀을 담았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배경으로 성우 김세원의 목소리로 낭독됩니다.



AMC2-014
**세상의 모든 음악 1집:
음악을 들으며 숲으로 가다...**

부드러운 미풍에 간지럼 타는 연못가의 햇살, 노을에 붉게 물드는 외로운 저녁바다, 푸른 산 위에 떠오르는 창백한 달.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음악이다. 그런 음악들이 그리워 우리는 숲으로 간다. 순결한 천사들의 합창(어찌 노래하지 않으리요?) 이국에서 느끼는 야릇한 향수와 설움(마리아), 숨이 멎을 정도로 황홀한 사랑의 눈빛(그대는 나를 놀라게 합니다)등...새들의 지저귐에 눈뜬 청명한 가을 아침엔, 이런 음악들이 그리워 견딜 수 없다. 장로를 초월한 '좋은 음악'이 들어있다. 단 한번만 들어도 마음을 휘어잡는 아름다운 음악이 들어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고 싶어지는 저녁, 어두워지는 거리에서 눈물나게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음악편지. 세상의 모든 음악들을 만나기 위해 숲으로 간다.



AMC2-062
**세상의 모든 음악 3집:
저녁, 길모퉁이 카페**
따뜻한 세상을 향한 공감과 소통의 음악 아일랜드에서 노르웨이까지 18가지 빛깔로 물들이는 '세상의 모든 음악' KBS 1FM의 월드뮤직 프로그램 '세상의 모든 음악'은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휴식과 위로와 평화의 음악을 제공한다. 언어와 민족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음악으로 공감과 소통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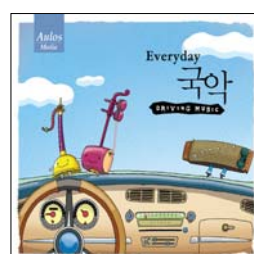


AMC2-090
**장대건 2집:
스페인의 인상**
한국이 낳은 세계 정상급 기타리스트 장대건. 카날스, 밀란, 소르 등 유럽의 수많은 국제 콩쿠르를 석권하고, 스페인을 무대로 유럽에서 활동해 온 기타리스트 장대건의 2번째 음반. 스페인 기타음악의 주옥같은 레퍼토리를 엄선하여 그래미상 레코딩 부문 수상자 황병준이 녹음에 참여한 최고의 연주, 최고의 레코딩 (보너스로 영화 [금지된 장면]중의 "로망스" 수록.)



AMC2-024
**차이코프스키:
현악 사중주 1-3번, 플로렌스의 추억**
보로딘 사중주단 최전성기의 멤버들이 연주하는 차이코프스키 현악사중주에서 완벽한 모델을 찾다면, 당연히 보로딘 사중주단의 70년대의 연주라고 할 수 있다. 두툼하고 안정적인 앙상블로 튼튼한 구조를 다지는 동시에, 이따금 등장하고 있는 러시아 민요 선율들에서 진하고 구수한 대지의 향기를 맡게 해줌으로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보로딘 사중주단의 이 연주는 이들의 성실하고 진지하게 흔들어버리는 보로딘 사중주단의 이 연주는 이들의 성실하고 진지하게 쌓아올려 왔던 58년이라는 긴 역사를 그대로 반영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6중주 '피렌체의 추억'에서는 보로딘 사중주단 최초의 첼리스트로 가담했던 로스트로포비치가 합류하고 있어서 그 가치를 한층 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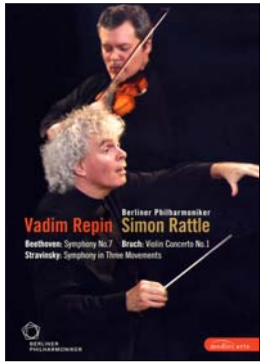


AMC2-094
**Everyday 국악:
드라이빙 뮤직**
KBS 국악전문 프로듀서 김은정 PD가 추천하는 Everyday 국악(드라이빙 뮤직). 참으로 볼 것, 들을 것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 빠르고 편리함을 추구하다보니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공간의 어지러운 속에 놓여있게 되었다. 짧은 시간, 좁은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여유도 점차 호흡이 가파르고 복잡한 소리로 채워진다. 그래서 나만의 공간, 또는 내가 아끼는 사람과의 시간에 포근함과 편안함을 더해 놓을 수 있는 음악들을 제안해 본다. 서양음악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쉽게 들을 수 있는 퓨전국악들을 소재로 하였다. 매일매일 당신의 컵에 정겨운 우리악기 소리를 두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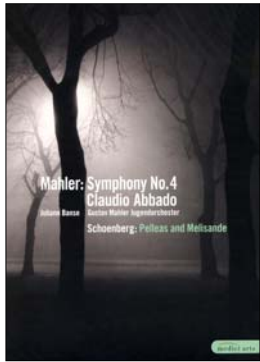
Medici Arts DVD Best



Medici Arts 2072518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탄생 100주년 감동의 2008 기념 콘서트
베를린 필, 소피 무터, 오자와 세게 일곱 음악가들과 함께 만난 콘서트



Medici Arts 2056978
베를린 필 2008 유러피언 콘서트
브루흐: 바이올린협주곡 1번
베토벤: 교향곡 7번
스트라빈스키: 3악장 교향곡
바딤 레핀과 사이몬 래틀이 만든 어뎀 완벽한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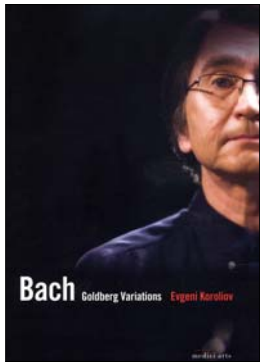
Medici Arts 2055488
말라: 교향곡 4번
쇤베르크: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무지크페라인을 감동의 도가니로 이끈 아바도의 말라 교향곡 4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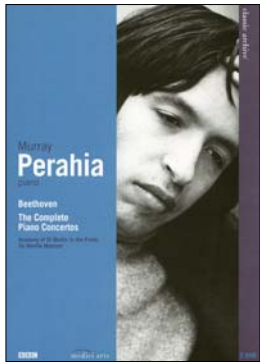
Medici Arts 2057758
베를린 필의 2009년 발트뷔네 콘서트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3번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인형 발레
러시아의 웅장함을 리듬으로 장식된 여름밤의 음악축제



Medici Arts 2057728
베를린 필의 2009년 유러피언 콘서트
슈베르트: 교향곡 9번 '그레이트'
마르투치: 추억의 노래
베르디: 운명의 힘 서곡
자신의 고향 나폴리에서 17년 만에 베를린 필을 지휘한 리카르도 무티



Medici Arts 2057238
JS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골드베르크는 골드와 투렉이면 충분하다고요? 코렐리오프를 한번 들어보시죠.



Medici Arts 3085298
[2 DVD for 1]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네빌 매리너(cond.)
피아노의 귀족 페라이어의 고상한 품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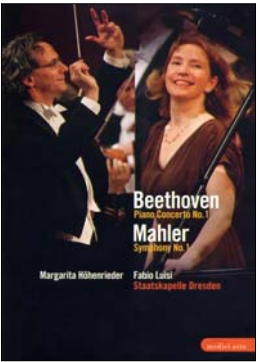


Medici Arts 3078928
마르타 아르헤리치
베르비에르 페스티벌 라이브
현존 최고의 여류 피아니스트 아르헤리치의 최근 활약상을 담은 최고의 영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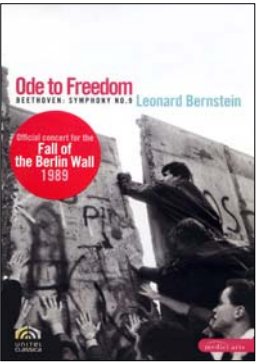
Medici Arts DVD B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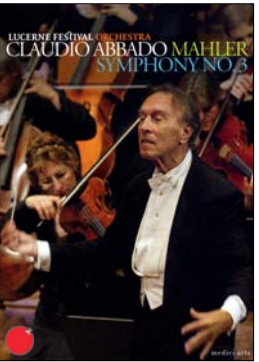
Medici Arts 2057438
노벨상 기념 콘서트 실황 2008 - 가디너
드보르작: 교향곡 7번
모차르트: 미사 C단조
최고의 과학자들을 위해 가디너가 마련한 최고의 음악축하연



Medici Arts 2057718
말라: 교향곡 1번 '타이탄'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번
파비오 루이지/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의 폭풍과도 같은 말라 교향곡 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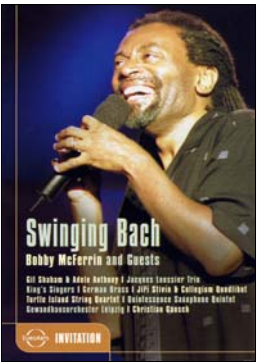
Medici Arts 2072039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베를린 장벽 붕괴 기념 콘서트
베를린 장벽 붕괴를 기념하는 번스타인의 자유의 송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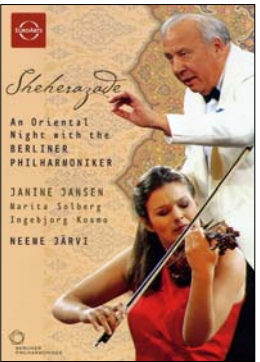
Medici Arts 2056338
말라: 교향곡 3번
수입 완제품으로 선보이는 아바도, 루체른 페스티벌의 말라 최신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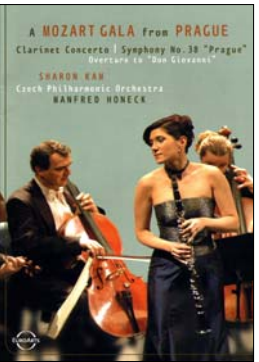
Medici Arts 3078058
2007년 스위스 베르비에 (Verbier) 페스티벌
최고의 장면만 모은 하이라이트 판. 아르헤리치, 카신, 르노 카튀송, 조슈아 벨, 마이스키...현역 최고의 음악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난다. 다양한 독주, 실내악, 협주곡의 하이라이트를 안방에서 즐길 수 있다. 아르헤리치, 카신 등 현역 최고의 음악가들이 한자리에...



Medici Arts 2050406
Swinging Bach
Bobby McFerrin & Guests
흥겨운 스윙으로 재탄생한 바흐의 선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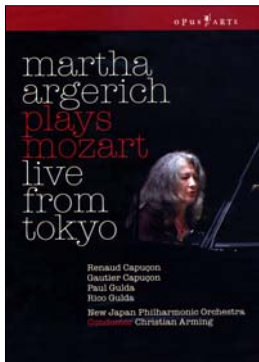


Medici Arts 2055318
SHEHERAZADE
(2006 발트뷔네콘서트)
한여름 숲속의 음악 잔치인 발트뷔네 콘서트



Medici Arts 2055158
A MOZART GALA FROM PRAGUE
프라하에서 펼쳐진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콘서트 실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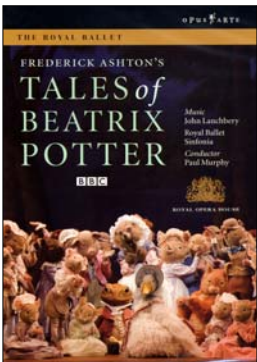
OpusArte DVD Best



OpusArte OA1004D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연주하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
3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KV242 외
프리드리히 굴다를 추억하는 마
르타 아르헤리치의 아주 특별한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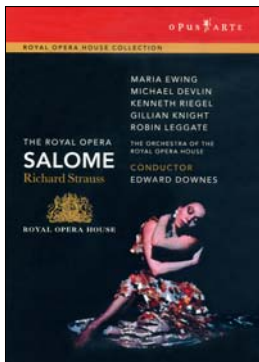
OpusArte OA1008D [2DVDs]
안무: 노이마이어
음악: 쇼팽 <카멜리아의 여인>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원작
을 감동적인 발레로 만나다.



OpusArte OA1001D
베아트릭스 포터 이야기
베아트릭스 포터의 동물 동화를
발레로 만나는 최고의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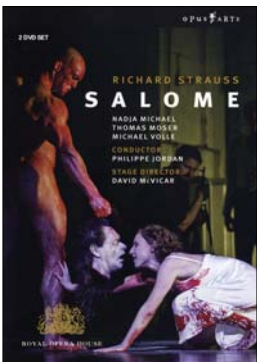
OpusArte OA0990D [2DVDs]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넵트렌코의 연인, 어원 슈로트의
넘치는 매력을 만나다.



OpusArte R3108D
R. 슈트라우스:
살로메
육감적 소프라노 마리아 유잉이
펼친 충격적인 '일곱 베일의 춤'



OpusArte OA1009D [2DVDs]
모차르트:
돈 조반니
현존 최고의 돈조반니, 사이먼 킨
리사이드의 열연을 담은 최신영
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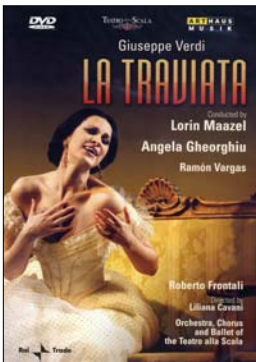


OpusArte OA0996D [2DVDs]
R.슈트라우스:
살로메
영국 오페라계를 강타했던 화제
의 공연 DVD로 선보이다.



OpusArte R3106D
구노:
로미오와 줄리엣
감동적인 명연으로 기록된 1994
년 코벤트가든 로열 오페라 실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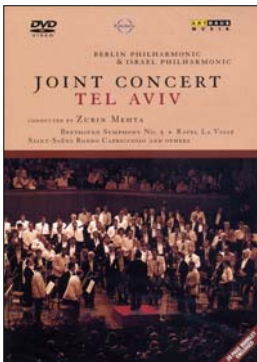
Arthaus DVD Best



Arthaus 101 343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여전히 아름다운 게오르규, 로린
마젤의 강렬한 카리스마, 라몬 바
르가스의 열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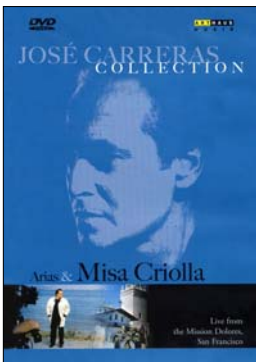
Arthaus 101 457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팔레스트리나: 모테트 '투 에스
페르투스'
마리스 안손스, 바티칸에서 합창
교향곡을 지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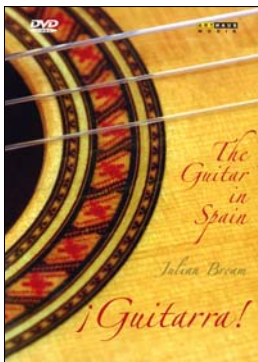
Arthaus 100 069
베토벤: 교향곡 5번
베버: 클라리넷 협주곡
생상: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스 외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베를린
필과 이스라엘 필의 역사적인 조
인트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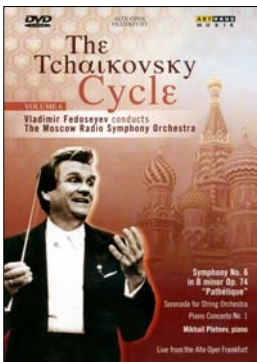
Arthaus 101 329
푸치니:
제비
푸치니의 버림받은 오페라, 최신
영상물로 화려하게 부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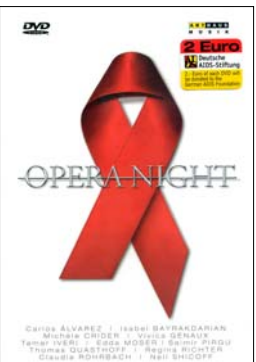
Arthaus 101 405
호세 카레라스
미사 크리오야
제 3세계 미사곡의 대표작, <미사
크리오야>를 카레라스가 열창하
다.



Arthaus 102 003 [2DVDs]
The Guitar in Spain
Julian Bream
줄리안 브람이 들려주는 스페인
기타의 화려한 역사



Arthaus 102 131
차이코프스키 사이클 VOL.6
교향곡 6번 '비창', 현을 위한 세
레나데, 피아노 협주곡 1번
페도세예프의 비창 교향곡, 플레
트네프의 피아노 협주곡 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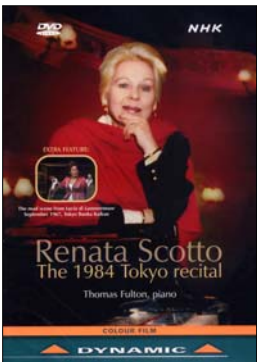


Arthaus 101 105
오페라의 밤:
2005년 쾰른
독일 에이스 기금 마련을 위한
2005년 쾰른의 오페라 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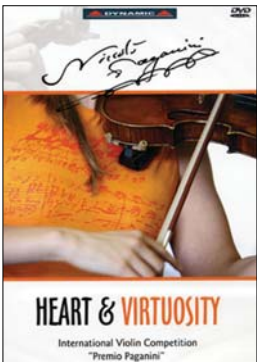
Dynamic DVD Best



Dynamic 33427
마스네:
타이스
종교와 에로스의 극치끼리는 통한다! '타이스 명상곡'의 오페라



Dynamic 33607
레나타 스코토
1984년 도쿄 리사이틀 실황
'디바 이상의 디바' 레나타 스코토의 완벽한 리사이틀



Dynamic 33539
Heart & Virtuosity
2006년 51회 파가니니 바이올린 콩쿠르의 생생한 뒷이야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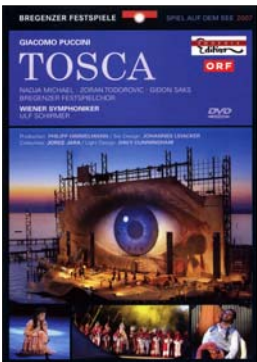
Dynamic 33459
비제:
진주조개잡이
'나디르의 로망스', 그 황홀한 매력에 넘치는 오페라

Domovideo DVD Best



DOMOVIDEO DMM-518
그리스인 조르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영상물. [조르바의 댄스] 그 이름만으로도 흥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자유로운 영혼과 숭고한 인간미의 극적 완성미를 갖춘 발레극.

Phoenix DVD Best



Phoenix 801
푸치니:
토스카
커다란 푸른 눈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토스카의 비극

C-Major DVD Best



C-Major 700208
슈베르트 3대 연가곡
'갓 찢낸 찐빵' 처럼 친근한 헤르만 프라이의 슈베르트 3대 연가곡



C-Major 700308
푸치니:
투란도트
최고의 드라마틱 소프라노 마리아 굴레기나 드디어 투란도트를 노래하다.



ARTHAUS
MUSIC

www.arthaus-musik.com



Arthaus 101 322

호페르딩크: 헨젤과 그레텔

전혀 새롭게, 그러나 훈훈하게 재해석한 크리스마스 동화 오페라
엔겔베르트 호페르딩크(1854~1921)의 〈헨젤과 그레텔〉은 그림 형제의 동화에 바탕을 둔 어린이 오페라다. 서구에서는 크리스마스에 가장 인기있는 오페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명(同名)의 우리나라 영화가 그러하듯이 이면에는 잔혹한 상징이 숨겨져 있다. 먹을 것이 없는 배고픈 아이들,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가난한 부모, 아이들을 잡아먹는 숲속의 마녀, 남매에 의한 마녀 살해 등등... 게다가 호페르딩크의 음악은 동요를 이용하거나 기도 장면을 삽입하는 등 아름다운 부분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바그너 식의 오케스트레이션으로 무척 근대적이다. 그러나 이 영상물은 전혀 새로운 시각을 취했다. 과자의 집은 마녀가 사는 곳이 아니라 가난한 남매의 부모가 몰래 공들여 준비한 크리스마스 파티로 말이다. 따라서 아버지와 마녀는 일인이역이다. 그렇다면 마녀를 화력에 밀어 넣는 부분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문제들을 연출가 요하네스 펠젠슈타인은 납득할 만하게 처리해 나간다. 독일 중동부에 있는 데사우의 안할트 극장은 독일의 대표 극장은 아니지만 2007년의 본 공연은 아가지기한 무대와 아름다운 색감, 젊은 연주자들의 노력이 어우러져 최상의 가족오페라로 창조되었다.

슈만: 게노베바



Arthaus 101 328

율리안 반제(게노베바), 셴 마테이(골로), 마틴 겐트너(지크프리트), 코르넬리아 칼리슈(마르가레타) 외 니콜라스 아르농쿠르/ 취리히 오페라

슈만이 남긴 유일한 오페라, 쿠세이의 잔혹극으로 재탄생하다
'게노베바'는 슈만이 남긴 유일한 오페라다. 중세 유럽의 인기 설화 중 하나인 브라반트의 주느비에브 이야기를 토대로 완성한 작품으로, 작곡 당시 작곡가와 교류가 있었던 바그너의 영향이 전곡에 걸쳐서 강하게 드러난다. 초연 이후부터 오래도록 비인기작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 작품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니콜라스 아르농쿠르다. 아르농쿠르는 1996년 이 작품의 걸출한 CD녹음을 완성한 바 있으며, 2008년 취리히 오페라 무대에 올랐던 본 공연상황을 통해서도 자신이 '게노베바'의 열렬한 전도사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아르농쿠르의 걸출한 음악적 해석과 더불어, 손대는 작품들마다 논란을 양산했던 문제 연출가 마틴 쿠세이의 파격적인 연출 역시 이 공연을 화젯거리로 만들어 놓았다. 게노베바의 정절을 상징하는 순백의 실내공간은 선혈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연출의 잔혹성을 한층 더 도드라지게 만든다. 그간 독일 리트 분야에서 걸출한 활약을 보여주었던 율리안 반제는 이 영상을 통해 명성에 걸맞은 뛰어난 가창과 더불어 쿠세이가 요구하는 난이도 높은 연기 또한 훌륭히 해결해 내었다.



www.cmajor-entertainment.com



C-Major 700404

푸치니: 투란도트

마리아 굴레기나(투란도트), 마르코 베르티(칼라프), 알렉시아 불가리두(류) 외
주빈 메타 / 발렌시아 코무니타트 오케스트라

최고의 드라마틱 소프라노 마리아 굴레기나 드디어 투란도트를 노래하다.

2008년 5월 스페인 발렌시아의 최첨단 공연장인 팔라우 데 레자르의 투란도트 프로젝트는 여러 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영화 '파왕별희'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던 중국의 대표명장 첸 카이거가 최초로 오페라 연출을 맡았고, 이 시대 최고의 드라마틱 소프라노의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대형가수 마리아 굴레기나가 팬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투란도트를 노래하였다. 굴레기나는 이 공연의 큰 성공 이후 메트, 리세우대극장, 베를린 도이치오퍼, 워싱턴 국립오페라 등에서 동일 배역을 연거푸 맡으면서, 명실상부한 현역 최고의 투란도트로 군림하게 되었다. 첸 카이거의 연출은 중국역사의 한 장면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기보다는 화려한 의상과 장중한 무대미술을 통해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동양에 대한 신비로운 이미지를 충족하는 쪽에 보다 주력하였다. 베테랑 주빈 메타의 지휘는 작품 구성구석을 완전히 꿰뚫고 있으며, 발렌시아 오케스트라는 '진정한 소리의 불꽃놀이'라는 외지(Wiener Zeitung)의 평처럼 빼어난 앙상블로 이 프로젝트의 음악적 완성도를 높여주었다.



C-Major 700604

바그너: 라인의 황금

유하 우시탈로(보탄), 프란츠 요제프 카펠만(알베리히), 안나 라르손(프리카), 온 다삭(로게) 외
주빈 메타/ 발렌시아 코무니타트 오케스트라

상상 그 이상을 눈앞에 펼쳐놓는 21세기형 '링'의 장대한 서막

'링' 사이클은 종합예술에 대한 바그너의 원대한 이상이 구현된 음악역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운 거대한 역작이다. 바그너리언들의 성지인 바이로이트를 비롯하여 세계의 일급 오페라극장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역량을 집대성하여 이 4부작을 무대에 올리고 있는데, '21세기의 링'을 자처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인 2007년 봄 스페인의 아름다운 항구도시 발렌시아에 자리 잡은 최첨단 시절의 공연장인 팔라우 데 레자르에서 공개되었다. 카를루스 파드리사가 연출을 맡은 이 프로젝트는 바르셀로나가 자랑하는 공연그룹인 라 푸라 델스 바우스의 아크로바틱에 가까운 행위예술과 무대전면을 가득 메운 화면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3D영상과 홀로그램, 그리고 영화 제5원소의 그것을 연상케 하는 미래지향적인 의상과 각종 기계장치 등을 총동원하여 스타워즈 세대의 눈높이를 완전히 충족시켜주는 멋진 SF형 무대를 완성해내었다. 지금까지 등장했던 그 어떤 영상물도 라인 강의 도도한 흐름이나 신들의 세계에서 지하 니벨하임으로 내려가는 장면 등을 이처럼 박력 넘치게 묘사하지는 못했다. 인간의 상상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수 있을지를 실감케 하는 최고의 '링' DVD를 놓치지 마시라.



www.cmajor-entertainment.com



C-Major 700804

바그너: 발퀴레

페터 자이페르트(지그문트), 제니퍼 윌슨(브륄힐데), 페트라 마리아 슈나이처(지글린데),
유하 우시탈로(보탄), 마티 살미넨(훈딩) 외/ 주빈 메타/ 발렌시아 코무니타트 오케스트라

시각과 청각 양쪽 모두를 풍족케 만드는 이 시대 최고의 '발퀴레'

'링'의 두 번째 작품인 '발퀴레'는 4부작 중에서 음악적인 완성도가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힌다. 3D 컴퓨터그래픽과 홀로그램 등의 최첨단 영상기술과 바르셀로나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행위예술단체인 라 푸라 델스 바우스의 상상력 풍부한 무대는 이 작품을 한층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주었다. 무대전면을 가득 채운 화면은 입체영상을 통해 작품의 공간적인 배경을 강렬하게 시각화해줄 뿐만 아니라, 2막 전반부 보탄이 브륄힐데에게 '라인의 황금'의 내용을 이야기해주는 부분에서는 실제 전편의 공연장면들을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의 이해를 보다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도 겸한다. 눈앞에 펼쳐지는 화려한 무대만큼이나 청각적인 만족감 역시 대단하다. 지그문트를 노래하는 최고의 바그너 테너 페터 자이페르트의 혼신의 열창, 새로운 바그너 히로인들로 각광받고 있는 페트라 마리아 슈나이처와 제니퍼 윌슨의 지글린데와 브륄힐데, 베테랑 마티 살미넨의 훈딩, 강력한 음성과 연기로 카리스마 넘치는 보탄을 구현한 유하 우시탈로의 열연, 풍부한 성량의 가수들로 포진된 8인의 발퀴레 등이 최고의 앙상블을 만들어내며,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발렌시아 오케스트라 역시 바이로이트가 부럽지 않은 장쾌하기 이를 데 없는 바그너사운드를 들려준다.

Coming Soon.....



C-Major 701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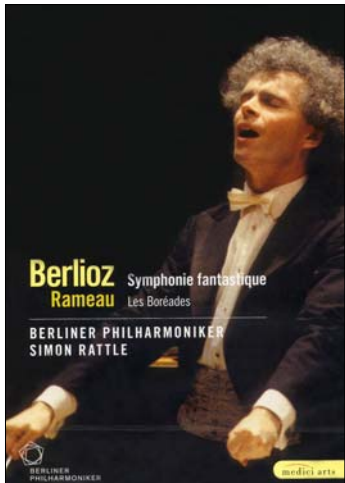


C-Major 701204



Medici Arts DVD

Medici Arts는 EuroArts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www.euroart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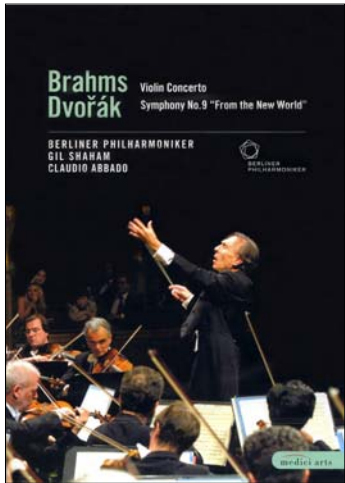


Medici Arts DVD 2057558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
라모: ‘르 보레아드’ 발레 모음곡

사이먼 래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래틀과 베를린 필의 독특한 동반자관계를 예고하는 특별한 콘서트실황. 1987년 말러 6번을 지휘하면서 베를린 필과 첫 만남을 가졌던 사이먼 래틀은 이후 수차례 객원지휘를 통해 이 악단과 멋진 파트너십을 보여주었고, 마침내 1999년 단원들의 투표를 통해 아바도의 후임자로서 낙점을 받게 되었다. 본 DVD는 아직 음악감독으로 결정되기 이전인 1993년 11월의 콘서트실황을 담은 것으로, 베를린 필을 지휘하는 래틀의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서는 가장 시기가 앞선 기록이다. 프로그램이 독특하다. 각각 바로크와 낭만시대에 오케스트레이션의 혁명을 불러일으켰던 인물들인 라모와 베를리오즈의 대표관현악곡을 짝지었다. 라모의 마지막 무대음악작인 ‘르 보레아드’(북풍신의 아들)에서 발췌한 관현악모음곡에서는 굳이 시대악기의 도움이 아니더라도 프랑스 바로크음악의 산뜻한 풍미가 멋지게 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베를린 필 단원들의 뛰어난 개인기와 일상불란한 합주력이 위력을 발휘하는 환상 교향곡 역시 나무랄 곳 없다. 풍부한 표정과 큰 액션으로 세계 최고의 악단을 당당하게 이끌어나가는 래틀의 모습이 인상적이며, 엠마누엘 파위, 알브레흐트 마이어, 슈테판 도어의 미청년시절의 같은 풋풋한 얼굴들도 신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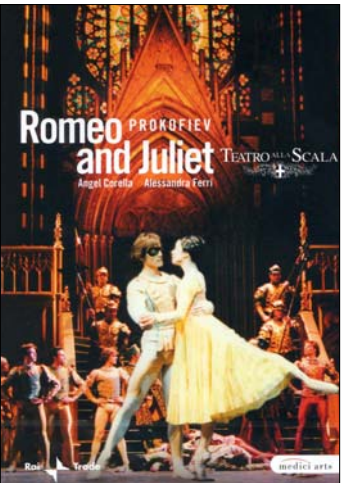


Medici Arts DVD 2051958

베를린 필의 2002년 유러피언 콘서트
드보르작: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길 사함(vn)/ 클라우디오 아바도/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아바도의 감동적인 마지막 유러피언 콘서트, 수입완제품으로 등장하다. 발트뷔네 콘서트와 더불어 베를린 필이 자랑하는 양대 이벤트로 각광받고 있는 유러피언 콘서트는 매년 악단의 설립 기념일인 5월 1일에 유럽의 주요도시들을 순회하면서 펼쳐져왔다. 최고의 유러피언 콘서트의 하나로 손꼽히는 2002년 팔레르모 실황 DVD가 수입완제품으로 재등장하였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오페라극장이자 뛰어난 어쿠스틱으로 유명한 테아트로 마시모에서 펼쳐졌던 이 콘서트는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베를린 필의 음악감독으로서 마지막으로 지휘봉을 잡았던 유러피언 콘서트이기도 하다. 아바도는 위암수술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앙상한 몸골에도 불구하고, 혼신을 다한 연주를 통해 감동적인 유종의 미를 보여준다.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과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길 사함이 독주자로 나선 브람스의 바이올린협주곡, 그리고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대단히 알차며, 콘서트가 열린 이 도시를 위한 특별한 앙코르인 베르디의 ‘시실리섬의 저녁기도’ 서곡 역시 감동적이다. 팔레르모의 멋진 풍광과 이 도시의 찬연한 문화적 전통에 대한 2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필름이 보너스로 제공된다.



Medici Arts DVD 2050578

맥밀란: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드라마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을 라틴계 최고 스타들이 춤춘다

영국의 로열 발레를 주무대로 활동한 케네스 맥밀란(1929~1992)은 슈투트가르트 발레의 존 크랑코와 더불어 연극적인 ‘드라마 발레’를 개척한 최고 공로자이다. 그의 발레 중에는 <로미오와 줄리엣>과 <마농>이 가장 유명하지만 그밖에도 <마이얼링>, <겨울의 꿈>등 독창적인 드라마 발레를 남기고 있다. 프로코피예프의 음악을 사용한 <로미오와 줄리엣>은 1965년 마고트 폰테인과 루돌프 누레예프를 위해 안무한 것이다. 같은 곡에 의한 수많은 안무가 존재하지만 맥밀란의 것이 가장 인기 높는데, 특히 알렉산드라 페리(1963~)가 줄리엣을 가장 잘 춘 발레리나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21세(1984)에 로열 발레에서 줄리엣 역으로 스타덤에 오른 페리는 뉴욕의 아메리칸 발레 씨어터로 옮긴 이후에도 줄곧 줄리엣을 추었는데, 본 영상물은 2000년 고향인 밀라노의 라 스칼라 발레에서도 줄리엣을 춘 것이다. 특히 아메리칸 발레 씨어터의 동료이자 세계 최고의 테크니션인 스페인 출신의 젊은 스타 앙헬 코레아(1975~)가 로미오 역으로 초대되었다. 라 스칼라 극장의 보배 에치오 프리제리오와 프랑카 스카르치아피노가 각각 무대와 의상 디자인을 맡아 로열 발레나 아메리칸 발레 씨어터를 압도하는 볼거리를 만들어낸 것도 주목해야 한다.

[보조자료]

○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20세기에 작곡된 발레 음악 중 가장 인기있는 동시에 뛰어난 곡이기도 하다. 1938년 바나 프스타를 시작으로 러시아에서는 레오니드 라브로프스키, 유리 그리가로비치, 올레그 비노그라도프 등이 안무했고, 서구에서는 프레데릭 애쉬튼, 존 크랑코, 케네스 맥밀란, 비르기트 쿨베리, 존 노이마이어, 루돌프 누레예프, 안줄랭 프렐조카주, 장 크리스토프 마ियो 등이 안무했다. 이중 가장 자주 공연되는 것은 로열 발레, 호주 발레, 아메리칸 발레 씨어터, 라 스칼라 발레에서 채택하고 있는 맥밀란 버전이다.

○ 맥밀란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갖는 가장 중요한 미덕은 무대에 빨려 들어갈 듯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힘이다. 예컨대 가장 중요한 발코니 장면에서 수줍어하는 척 로미오의 손을 자기 가슴에 갖다내는 줄리엣의 대담함이라든가, 첫 키스의 황홀한 표현력은 그야말로 압권이다. 그렇다고 맥밀란이 자극적인 표현만 남용하는 것은 아니다. 로미오가 만토바로 추방되고 자신은 파리스 백작과 결혼을 강요당하는 줄리엣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장면에서 맥밀란은 아예 춤을 없애버렸다. 음악이 극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가운데 겨우 14살의 줄리엣은 그저 침대 모퉁이에 앉아 먼 곳을 응시한다. 그러다가 뭔가 결심한 듯 굳었던 표정이 밝아진다. 그리고는 신부를 찾아 성당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줄리엣의 캐릭터를 이보다 더 상징적으로 살릴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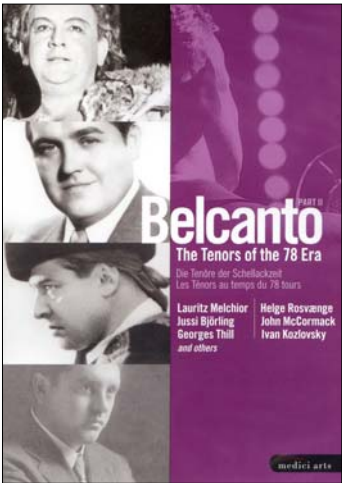


Medici Arts DVD 2050208

벨칸토 – 78회전 시대의 테너들, Part I

전설의 테너 1 : 카루소, 질리, 스키파, 타우버, 슬레자크, 슈미트

SP라 불리는 78회전 시대에는 19세기의 풍부한 오페라 유산을 가슴에 품고 태어난 전설적 테너들이 유독 많았다. 본 시리즈는 당시의 위대한 테너 중에서 12인을 선정하여 각자의 삶과 음악적인 특징을 다루고 있다. 흑백 필름에서 발췌한 소중한 자료들 중에 상당수는 처음 공개되는 것이며 이들의 귀한 녹음 중에서 최고의 명연들만 엄선하여 들려준다. 제1권에는 역사상 최고의 테너요, ‘테너의 왕’으로 불리는 이탈리아의 엔리코 카루소(1873~1921)를 비롯하여 그의 후계자 그룹 중에서 선두주자였던 베나미노 질리(1890~1957), 가장 감미로운 음성의 소유자 티토 스키파(1888~1965), 레하르 오페레타의 주인공으로 공전의 인기를 누린 오스트리아의 리하르트 타우버(1891~1948), 카루소와 동갑내기이자 ‘동유럽의 카루소’로 불린 체코의 레오 슬레자크(1873~1946),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요절한 비운의 유태계 테너 요제프 슈미트(1904~1942)가 소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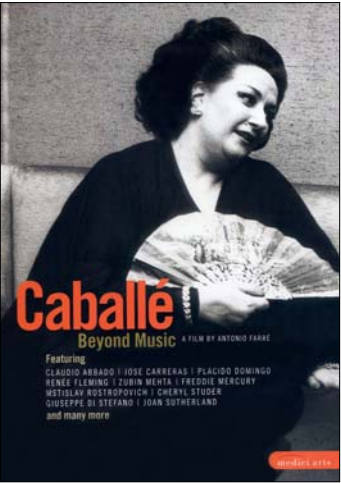


Medici Arts DVD 2050218

벨칸토 – 78회전 시대의 테너들, Part II

전설의 테너 2 : 멜히요르, 로스벵게, 비올링, 맥코맥, 톨, 코즐로프스키

SP라 불리는 78회전 시대에는 19세기의 풍부한 오페라 유산을 가슴에 품고 태어난 전설적 테너들이 유독 많았다. 본 시리즈는 당시의 위대한 테너 중에서 12인을 선정하여 각자의 삶과 음악적인 특징을 다루고 있다. 흑백 필름에서 발췌한 소중한 자료들 중에 상당수는 처음 공개되는 것이며 이들의 귀한 녹음 중에서 최고의 명연들만 엄선하여 들려준다. 제2권에는 바그너 오페라의 헬덴테너로서 전설적 명성을 누린 덴마크의 라우리츠 멜히요르(1890~1973), 역시 덴마크 출신이면서 독일과 이탈리아 레퍼토리에 두루 능했던 헬게 로스벵게(1897~1972), 풍운한 음색으로 인기를 누린 북유럽 최고의 테너 유시 비올링(1911~1960), 콘서트 테너인데도 굉장한 미성으로 인기를 누린 아일랜드의 존 맥코맥(1884~1945), 프랑스 테너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조르주 톨(1897~1984), 하이 F도 가능했던 소비에트의 괴물 테너 이반 코즐로프스키(1900~1993)가 실렸다. 부록으로 ‘노래하는 로봇’라는 추가적인 에피소드가 제공되는데, 카루소 이전의 뛰어난 테너이자 최고의 성악교사였던 페르난도 데 루치아가 그 주인공이다.



Medici Arts DVD 2053198

몽세라 카바예, 비온드 뮤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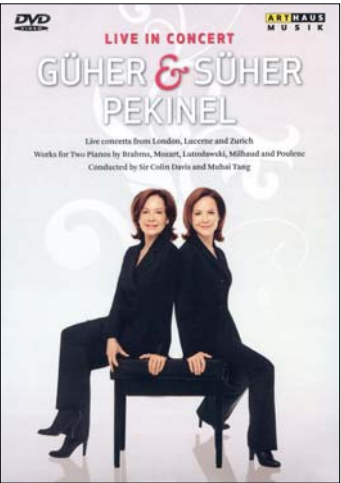
칼라스 이후 가장 카리스마 넘치는 소프라노 몽세라 카바예의 초상

마리아 칼라스 이후 가장 위대한 소프라노는 누구일까? 여러 가수가 후보에 오를 수 있지만 그중 스페인 바르셀로나 태생의 몽세라 카바예(1933~)가 제외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무려 140여편의 오페라를 섭렵한 카바예는 마리아 칼라스의 레퍼토리를 죄다 계승했을 뿐 아니라 무대 위의 카리스마에 있어서도 칼라스에 견줄만한 거의 유일한 가수였다. 이 영상물은 카바예가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커리어의 중요한 발전을 이룬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회고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중에는 바르셀로나 오페라의 상징인 리세우 극장이 화재로 전소된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있다. 이때 재건축을 위한 후원금 모금에 가장 열정적으로 앞장 선 이가 카바예였고 덕분에 리세우는 스페인을 넘어 유럽 굴지의 오페라 극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오페라 가수로서 카바예의 성장 과정과 카레라스를 위시한 파르너들과의 앙상을 외에도 팝가수 프레디 머큐리와와 남다른 우정, 유명 테너였던 남편 베르나베 마르티와의 안정된 결혼생활, 어머니를 이어 소프라노가 된 딸 몽세라 마르티와 함께 공연하는 모습도 실렸다. 이 다큐를 통해 카바예가 그저 ‘목소리 예쁜 동동한 가수’가 아니라 ‘20세기 최고의 소프라노’임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Arthaus DVD

www.arthaus-musik.com



Arthaus DVD 101 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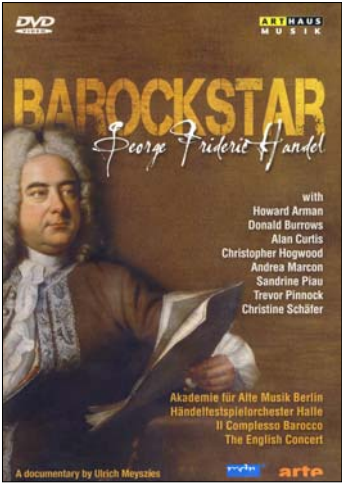
모차르트: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K.365

풀랑: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외

페키넬 자매/ 콜린 데이비스 외/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외

페키넬 자매가 들려주는 피아노듀오를 위한 대표 레퍼토리들

터키출신의 일란성 쌍둥이들인 페키넬 자매는 비슷한 연배의 라이벌인 라베코 자매와 더불어 세계적인 피아노듀오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다. 2006년과 2007년, 이들이 런던, 취리히, 루체른에서 가졌던 콘서트 실험들을 함께 묶은 이 DVD는 피아노듀오를 위한 대표 레퍼토리들을 망라하고 있다. 거장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K.365는 이들이 9세의 나이에 가졌던 첫 공개연주회 당시의 레퍼토리이기도 하다. 취리히에서는 풀랑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과 삼바 리듬으로 채워진 미요의 작품 스카 라무슈를 연주하였고, 루체른에서는 루토스와프스키의 파가니니 변주곡과 브람스의 피아노오중주 Op.34를 작곡가 자신이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로 편곡한 버전을 무대에 올렸다. 푸짐한 보너스가 함께 한다. 라흐마니노프 모음곡 5번 2악장과 바흐의 협주곡 BWV1062의 1악장 외에도, 자크 루시에 트리오와 협연한 ‘바흐 & 재즈’의 트레일러와 이들이 함께 연주한 바흐의 삼중협주곡과 비발디 사계 중 ‘봄’의 연주영상 등이 함께 제공된다.



Arthaus DVD 101 375

바로크 스타,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헨델

바로크 시대에 록스타 같은 존재였던 헨델에 대한 치밀한 다큐멘터리

바로크는 영문으로 baroque라고 쓴다. 그러나 이 영상물의 제목은 ‘barockstar’다. 바로크 음악의 대표 작곡가 헨델(1685~1759)이 런던에서 누린 인기를 오늘날의 록스타의 그것에 견준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헨델은 단순한 작곡가가 아니라 음악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음악총행사의 한 사람이었다. 헨델 서거 250주년을 맞이한 2009년에 제법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만큼 공들여 만든 헨델 다큐멘터리는 결코 없었다. 63세의 늙은 부친이 34세의 모친과의 사이에서 늦둥이로 낳은 헨델의 출생, 고향인 독일 할레를 떠나 이탈리아의 로마, 베네치아, 파렌체를 돌아다니며 공부한 일, 영국으로 건너가 런던에서 꽃피운 그의 전성기와 슬럼프에 이르기까지 과장이나 연기에 의한 재연 없이 객관적 자료만으로 담담하게 풀어내지만, 뛰어난 바로크 지휘자인 앨런 커티스, 크리스토퍼 호그우드, 안드레아 마르콘, 트레버 피노크, 성악가인 산드린 피오와 크리스티네 쉐퍼가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권위를 입혔다. 또한 관현악 연주는 잉글리쉬 콘소트, 할레의 헨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 일 콰르테토 바로코 등 세계 최고의 바로크 전문 악단들이 담당하고 있다.

[보조자료]

○ 헨델은 독일 작센의 할레에서 출생했고 21세인 1706년에 이탈리아로 건너가 음악적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음악수업을 마무리했다. 그런 다음에 이탈리아 양식의 큰 인기를 누린 런던으로 향했다. 그는 본질적으로는 오페라 작곡가였지만 영국 국왕을 위한 〈수상 음악〉, 종교합창도 작곡했고 오페라 쪽에서 점점 인기를 잃은 다음에는 주분야를 영어 오라토리오로 선회했다. 기악곡 중에서 가장 중요한 ‘12개의 콘체르토 그로소’ 작품 6, 오라토리오 〈메시아〉, 관현악곡 〈왕궁의 불꽃놀이〉는 비교적 만년에 작곡되었다. 독일인으로 태어나 이탈리아 양식으로 작곡한 헨델은 1759년 4월 14일 런던에서 타계했다. 영국으로 귀화했으므로 최종 국적은 영국인이었다. 이를 보더라도 헨델은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코스모폴리탄이라 할 것이다.



Arthaus DVD 101 321

훔페르딩크: 헨젤과 그레텔

전혀 새롭게, 그러나 훈훈하게 재해석한 크리스마스 동화 오페라

엔겔베르트 훔페르딩크(1854~1921)의 〈헨젤과 그레텔〉은 그림 형제의 동화에 바탕을 둔 어린이 오페라다. 서구에서는 크리스마스에 가장 인기있는 오페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명(同名)의 우리나라 영화가 그러하듯이 이면에는 잔혹한 상징이 숨겨져 있다. 먹을 것이 없는 배고픈 아이들,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가난한 부모, 아이들을 잡아먹는 숲속의 마녀, 남매에 의한 마녀 살해 등등... 게다가 훔페르딩크의 음악은 동요를 이용하거나 기도 장면을 삽입하는 등 아름다운 부분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바그너 식의 오케스트레이션으로 무척 근대적이다. 그러나 이 영상물은 전혀 새로운 시각을 취했다. 과자의 집은 마녀가 사는 곳이 아니라 가난한 남매의 부모가 몰래 공들여 준비한 크리스마스 파티로 말이다. 따라서 아버지와 마녀는 일인이역이다. 그렇다면 마녀를 화덕에 밀어 넣는 부분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문제들을 연출가 요하네스 펠젠슈타인은 납득할 만하게 처리해 나간다. 독일 중동부에 있는 데사우의 안할트 극장은 독일의 대표 극장은 아니지만 2007년의 본 공연은 아기자기한 무대와 아름다운 색감, 젊은 연주자들의 노력이 어우러져 최상의 가족오페라로 창조되었다.

[보조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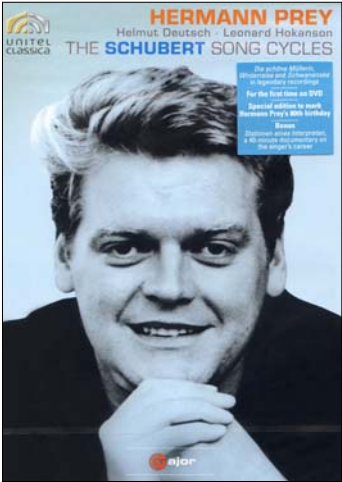
○ 독일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 중 훔페르딩크는 건축학도로 출발했다가 음악으로 전향했다. 특이하게도 나폴리를 방문했을 때 바그너를 만나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만년의 바그너는 그에게 바이로이트로 와서 자신을 도울 것을 제안했다. 훔페르딩크의 대표작은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왕의 아이들〉이다. 둘 다 동화를 원작으로 한 것이니 바그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면서도 소재의 선택만큼은 차이를 둔 셈이다.

○ 1893년에 초연된 〈헨젤과 그레텔〉은 순식간에 독일에서 가장 널리 공연되는 오페라의 하나가 되었고 훔페르딩크의 악보는 사실주의와 동화가 결합된 대본에 훌륭하게 대응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관현악은 굼직하면서도 섬세하게 교향악적 요소들을 짜나갔으며 민요나 찬송가에서 유래된 독립적인 주선율도 전달한다. 마녀는 3막에 처음 등장하지만 그 위협적인 분위기는 오페라의 첫 장면부터 암시된다. 마녀는 메조소프라노가 맡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테너나 바리톤이 맡기도 한다. 아무튼 남자 가수가 필수적인 것은 아버지 역 뿐이므로 이 오페라는 여학교에서 오페라를 공연하기 위한 레퍼토리로 선호된다.

C Major Entertainment DVD

www.cmajor-entertainment.com

C Major는 각종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 영상물의 전 세계적인 배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C Major Entertainment가 UNITEL의 방대한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직접 영상물 제작을 시작하면서 설립한 자체 레이블입니다. '21세기형 SF 링'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발렌시아 팔라우 데 레자르의 '링' 프로덕션과 '패왕별희'의 감독 첸 카이거의 첫 오페라 연출작인 푸치니의 '투란도트'가 먼저 선보이며, 앞으로 카라얀, 번스타인 등의 과거 UNITEL 영상들을 물론, 틸레만, 무티, 바렌보임 등의 현존 거장들의 최신 영상물들이 C Major의 DVD와 Blu-ray를 통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C-Major 700208

슈베르트 3대 연가곡

‘갓 찢낸 찢빵’처럼 친근한 헤르만 프라이의 슈베르트 3대 연가곡 독일의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1929~1998)는 20세기 후반의 리트 연주사에 있어서 4년 선배인 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와 쌍벽을 이룬다. 다만 피셔-디스카우가 지극히 이지적이고 논리적인 스타일로 독일 음악의 정통성을 리트에 부여했다면 프라이는 그와 대비되는 서민적인 수수함과 따스한 음색으로 색다른 뉘앙스를 입혔다. 그래서 음악평론가 고 한상우 선생은 클래식 음악방송을 진행하면서 프라이의 음성을 ‘갓 찢낸 찢빵’이에 비유한 바 있다. 실로 본질을 꿰뚫는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이 DVD에는 슈베르트의 3대 연가곡인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겨울 나그네>, 그리고 <백조의 노래>가 모조리 수록되었을 뿐 아니라 프라이 자신에 의한 간단한 안내가 붙어있다. 게다가 프라이에 대한 38분짜리 다큐멘타리가 보너스로 제공되는 등 무려 4시간이 넘는 성찬이다. 촬영된 시점은 1980년대 중후반이고 헬무트 도이치와 레너드 호칸슨이 피아노를 맡았다. 아무리 슬픈 가락이라도 희망을 담아 노래하는 프라이의 음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특히 <백조의 노래>는 어떤 성악가의 노래도 지금까지 DVD로 발매된 적이 없다.

[보조자료]

○ 헤르만 프라이는 1929년 7월, 베를린에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오페라 가수로는 독일보다 미국에서 먼저 유명해졌는데 1967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마술피리>의 파파게노로 찬사를 받은 것이다. 1973년에는 <세비야의 이발사>의 타이틀 롤로 ‘역대 최고, 이보다 잘하는 것은 불가능’이란 비평을 이끌어냈다. 리트 가수로는 슈베르트에서 가장 출중했는데, 특히 1977년 슈베르트 페스티벌을 창설하고 6년 후 슈베르티아데로 개명하면서 그 행사를 오스트리아에서 미국으로까지 확대했다. 슈베르트 탄생 200주년인 1997년에는 일본의 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유럽과 일본에서 <겨울 나그네>를 관현악 반주로 노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에도 두 차례 다녀갔으며 앙코르로 우리 가곡을 부르는 등 공연 옆집 아저씨 같은 푸근함을 안겨준 바 있다.

○ 슈베르트의 연가곡은 3개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두 개다. 연가곡이라 함은 연속되는 일련의 과정을 담은 내용이어야 하는데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와 <겨울 나그네>는 그 조건에 부합하는 반면 <백조의 노래>는 분리된 가곡을 묶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중 프라이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으로는 빌헬름 뮐러의 시에 의한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가 꼽힌다. 적어도 전반부의 푸릇푸릇한 사랑의 감정이 프라이 특유의 낙천성과 잘 어우러지기 때문이다.



C-Major 700308

푸치니: 투란도트

마리아 굴레기나(투란도트), 마르코 베르티(칼라프), 알렉시아 불가리두(류) 외
주빈 메타 / 발렌시아 코무니타트 오케스트라

최고의 드라마틱 소프라노 마리아 굴레기나 드디어 투란도트를 노래하다.

2008년 5월 스페인 발렌시아의 최첨단 공연장인 팔라우 데 레자르의 투란도트 프로덕션은 여러 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영화 ‘패왕별희’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던 중국의 대표 명장 첸 카이거가 최초로 오페라 연출을 맡았고, 이 시대 최고의 드라마틱 소프라노의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대형가수 마리아 굴레기나가 팬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투란도트를 노래하였다. 굴레기나는 이 공연의 큰 성공 이후 메트, 리세우대극장, 베를린 도이치오퍼, 워싱턴 국립오페라 등에서 동일 배역을 연거푸 맡으면서, 명실상부한 현역 최고의 투란도트로 군림하게 되었다. 첸 카이거의 연출은 중국역사의 한 장면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기보다는 화려한 의상과 장중한 무대미술을 통해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동양에 대한 신비로운 이미지를 충족하는 쪽에 보다 주력하였다. 베테랑 주빈 메타의 지휘는 작품 구석구석을 완전히 꿰뚫고 있으며, 발렌시아 오케스트라는 ‘진정한 소리의 불꽃놀이’라는 외지(Wiener Zeitung)의 평처럼 빼어난 앙상블로 이 프로덕션의 음악적 완성도를 높여주었다.

[보조자료]

○ <투란도트>는 푸치니의 마지막 오페라이자 미완성 상태로 남겨진 유작이다. 고대 중국을 배경으로 한 카를로 고치의 우화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일본을 소재로 한 <나비부인>과 더불어 당시 유럽에 일고 있던 동양 취향을 적절히 충족시켜주었던 오페라다. 푸치니는 3막의 류의 자살 장면 무렵에서 펜을 놓고 말았는데, 이후의 미완성부분은 제자 알파노가 완성하였다.

○ 첸 카이거가 재현한 투란도트의 무대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중국사의 사실적인 재현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영화 ‘패왕방’에서 첸 카이거와 함께 작업했던 천통선의 의상은 중국보다는 일본을 먼저 떠올리게 한다. 아마도 첸 카이거는 투란도트의 공간적 배경을 중국이 아닌 동양의 한 미지의 나라로 옮겨놓고자 한 것라 추정된다. 중국인의 입장이라면 잔혹하고 비이성적인 투란도트의 내용이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그리 달갑지는 않았을 것이다. 알통 왕을 수전중의 술주정뱅이처럼 묘사한 점도 특이하다.

○ 우크라이나 오데사 출신의 소프라노 마리아 굴레기나는 1987년 라스칼라에서 공연된 베르디의 ‘가면무도회’에서 파바로티의 상대역을 맡으면서 유럽 오페라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맥베트, 나부코, 토스카, 마농 레스코 등의 베르디와 푸치니의 주요 드라마틱 배역들을 두루 섭렵하면서, 대형 드라마틱 소프라노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C-Major 700508

바그너: 라인의 황금

유하 우시탈로(보탄), 프란츠 요제프 카펠만(알베리히), 안나 라르손(프리카), 온 다삭(로게) 외/
주빈 메타/ 발렌시아 코뮤니타트 오케스트라

상상 그 이상을 눈앞에 펼쳐놓는 21세기형 '링'의 장대한 서막

'링' 사이클은 종합예술에 대한 바그너의 원대한 이상이 구현된 음악역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운 거대한 역작이다. 바그네리언들의 성지인 바이로이트를 비롯하여 세계의 일급 오페라극장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역량을 집대성하여 이 4부작을 무대에 올리고 있는데, '21세기의 링'을 자처하는 혁신적인 프로덕션이 2007년 봄 스페인의 아름다운 항구도시 발렌시아에 자리 잡은 최첨단 시절의 공연장인 팔라우 데 레자르에서 공개되었다. 카를루스 파드리사가 연출을 맡은 이 프로덕션은 바르셀로나가 자랑하는 공연그룹인 라 푸라 델스 바우스의 아크로바틱에 가까운 행위예술과 무대 전면을 가득 메운 화면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3D영상과 홀로그램, 그리고 영화 제5원소의 그것을 연상케 하는 미래지향적인 의상과 각종 기계장치 등을 총동원하여 스타워즈 세대의 눈높이를 완전히 충족시켜주는 멋진 SF형 무대를 완성해내었다. 지금까지 등장했던 그 어떤 영상물도 라인의 강도의 도도한 흐름이나 신들의 세계에서 지하 니벨하임으로 내려가는 장면 등을 이처럼 박력 넘치게 묘사하지는 못했다. 인간의 상상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수 있을지를 실감케 하는 최고의 '링' DVD를 놓치지 마시라.

[보조자료]

○ '라인의 황금'은 '니벨룽의 반지'의 서막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전체 4부작 중 가장 짧으나, 이 거대한 시리즈의 드라마적인 배경과 더불어 이후 3 작품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한 유도동기(Leitmotif)들이 차례로 제시되는 대단히 중요한 작품이다. 작품의 대본은 북유럽 신화를 기초로 바그너 자신이 만들었다.

○ 카를루스 파드리사의 연출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초현실적인 새로운 차원의 시각적 충격을 안겨준다. 프랑크 알레우의 3D 컴퓨터그래픽은 '라인의 황금'의 무대를 우주의 광활한 공간 속으로 옮겨놓으며, 단원들의 온 몸을 동원하여 라인의 황금과 발할라성을 표현해내는 라 푸라 델스 바우스의 아크로바틱에 가까운 행위예술 역시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 새로운 바그너 저음가수로 각광받고 있는 핀란드 출신의 베이스-바리톤 유하 우시탈로는 흡사 프리데터를 연상케 하는 강렬한 외모와 풍부한 성량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보탄의 위엄을 훌륭히 연기해내었다. 베테랑 마티 살미넨과 안나 라르손 등의 열창과 주빈 메타의 노련한 지휘는 시각적 충격에 버금가는 강력한 바그너 사운드를 만들어내었다.



C-Major 700708

바그너: 발퀴레

페터 자이페르트(지그문트), 제니퍼 월슨(브륄힐데), 페트라 마리아 슈나이처(지글린데), 유하 우시탈로(보탄), 마티 살미넨(훈딩) 외/ 주빈 메타/ 발렌시아 코뮤니타트 오케스트라

시각과 청각 양쪽 모두를 풍족케 만드는 이 시대 최고의 '발퀴레'

'링'의 두 번째 작품인 '발퀴레'는 4부작 중에서 음악적인 완성도가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힌다. 3D 컴퓨터그래픽과 홀로그램 등의 최첨단 영상기술과 바르셀로나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행위 예술단체인 라 푸라 델스 바우스의 상상력 풍부한 무대는 이 작품을 한층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주었다. 무대전면을 가득 채운 화면은 입체영상을 통해 작품의 공간적인 배경을 강렬하게 시각화해 줄 뿐만 아니라, 2막 전반부 보탄이 브륄힐데에게 '라인의 황금'의 내용을 이야기해주는 부분에서는 실제 전편의 공연장면들을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의 이해를 보다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도 겸한다. 눈앞에 펼쳐지는 화려한 무대만큼이나 청각적인 만족감 역시 대단하다. 지그문트를 노래하는 최고의 바그너 테너 페터 자이페르트의 혼신의 열창, 새로운 바그너 히로인들로 각광받고 있는 페트라 마리아 슈나이처와 제니퍼 월슨의 지글린데와 브륄힐데, 베테랑 마티 살미넨의 훈딩, 강력한 음성과 연기로 카리스마 넘치는 보탄을 구현한 유하 우시탈로의 열연, 풍부한 성량의 가수들로 포진된 8인의 발퀴레 등이 최고의 앙상블을 만들어내며,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발렌시아 오케스트라 역시 바이로이트가 부럽지 않은 장쾌하기 이를 데 없는 바그너사운드를 들려준다.

[보조자료]

○ '발퀴레'는 '니벨룽 반지'의 첫 번째 밤을 위한 3막의 뮤직드라마다. (개시작인 '라인골트'는 시리즈의 전야를 위한 작품이다.) 신들의 몰락을 염려한 보탄은 인간과의 사이에서 지그문트와 지글린데라는 쌍둥이남매를 얻는다. 남매는 어려서 서로 이별하였고, 지글린데는 훈딩의 아내가 되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날 지그문트는 지글린데의 집을 우연히 찾게 되고, 이들은 서로에게 반한다. 남매임을 알게 되지만, 서로를 향한 그들의 열망은 꺼지지 않는다. 둘을 아반도주하고 아내를 뺏긴 훈딩은 보탄의 아내 프리카에게 하소연한다. 프리카는 보탄에게 이 사건을 추궁하고, 궁지에 몰린 보탄은 영웅들의 영혼을 소환하는 일을 하는 자신의 딸들인 발퀴레 중에서도 가장 총애하는 브륄힐데를 불러 지그문트를 제거할 것을 명한다. 지그문트를 찾은 브륄힐데는 이들의 딱한 사정을 보고 연민을 품고,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다. 노한 보탄은 훈딩을 도와 지그문트를 살해하고, 지글린데는 지그문트의 씨를 복중에 품고 도망친다. 보탄은 자신을 배반한 브륄힐데를 마법의 불 속에 가두며 이 작품이 마무리된다.

○ 지그문트를 노래한 페터 자이페르트는 바이로이트를 비롯한 정상급 오페라극장들에서 최고의 바그너 테너의 한 사람으로 각광받고 있다. 로엔그린, 탄호이저, 트리스탄, 지그문트 등의 주요 바그너 배역들을 섭렵하였다. 과거 16살 연상의 루치아 폼과 부부사이였으며, 현재의 부인은 바로 본 DVD에서 지글린데로 함께 호흡을 맞춘 독일 소프라노 페트라 마리아 슈나이처다.

NAXOS RINGTONE (코드링) SERVICE

낙소스의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이제는 핸드폰으로 바로 컬러링(통화연결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필요없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TRACK

코드링 (40초) 코드링 (60초)

Rodgers: Do-Re-Mi (도레미 송)	##7168011	##7268011
Bernstein: West Side Story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7168040	##7268040
Chabrier: Espana (에스파냐)	##7168012	##7268012
Verdi: La Traviata - Drinking Song (축배의 노래)	##7168013	##7268013
Brahms: Cradle Song (자장가)	##7168014	##7268014
Paganini: La Campanella (라 캄파넬라)	##7168015	##7268015
Piazzolla: Libertango (리베르탱고)	##7168016	##7268016
Offenbach: Can-Can (캉캉)	##7168017	##7268017
Strayhorn: Take the 'A' Train	##7168018	##7268018
Caravan	##7168019	##7268019
Un bel di vedremo (어느 개인 날)	##7168020	##7268020
Anderson: Blue Tango (블루탱고)	##7168021	##7268021
Anderson: Belle of the Ball	##7168022	##7268022
Anderson: Chicken Reel	##7168023	##7268023
Fiddle-Fiddle	##7168024	##7268024
Sleeping Beauty: Waltz (잠자는 숲속의 공주:왈츠)	##7168025	##7268025
Swan Lake: Waltz (백조의 호수: 왈츠)	##7168026	##7268026
The Nutcracker: March (호두까기인형: 행진곡)	##7168027	##7268027
The Nutcracker: Dance of the Sugar Plum Fairies (호두까기 인형: 사탕요정의 춤)	##7168028	##7268028
The Nutcracker: Chinese Dance (호두까기 인형: 중국인형의 춤)	##7168029	##7268029

이용방법 (How to use) >>

곡의 코드링 입력 후 통화 누르기 ➡ ①미리듣기 ②구매 ③선물하기 선택
예) 도레미 송 60초 컬러링 이용방법
##7268011 + 통화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 선택 후 구매.
40초 - 1,200원 | 60초 - 1,300원



NAXOS RINGTONE (코드링) SERVICE

낙소스의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이제는 핸드폰으로 바로 컬러링(통화연결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필요없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TRACK

일반 코드링 (40초) 롱 코드링 (60초)

Vivaldi: The 4 Seasons Violin Concerto Op.8 No.3 Autumn - I. Allegro	##7170133	##7270133
Bolling: Baroque And Blue	##7170134	##7270134
Bolling: Javanaise	##7170135	##7270135
Bolling: Irlandaise	##7170136	##7270136
Bolling: Amoureuse	##7170137	##7270137
Bolling: Jazzy	##7170138	##7270138
Garnier: Misty	##7170139	##7270139
Albeniz: Suite Espanola No.1 Op.47 - Cuba (스페인 모음곡 1번 - 쿠바)	##7170140	##7270140
Berlin: I'll see you in Cuba	##7170141	##7270141
Damare: Le Merle Blanc Op. 161 (다마레: 하얀 티티새)	##7170142	##7270142
Faure: Berceuse Op.16 (포레: 자장가)	##7170143	##7270143
Piazzolla: Histoire Du Tango - Bordel 1900 (탱고의 역사 - 선술집)	##7170144	##7270144
Schubert: Piano Quintet in A Major, D.667 'Trout' - Theme with Variations - Allegro Giusto	##7170145	##7270145
Over The Rainbow	##7170146	##7270146
We'll Meet Again	##7170147	##7270147
La Mer	##7170148	##7270148
Williams: Star Wars - Main Title	##7170149	##7270149
Mr. Lee	##7170150	##7270150
Feaster: Sh-Boom	##7170151	##7270151
Berry: Maybelline	##7170152	##7270152

이용방법 (How to use) >>

곡의 코드링 입력 후 '통화' 누르기 ➡ ①미리듣기 ②구매 ③선물하기 ➡ 선택
예) '다마레: 하얀 티티새' 롱 컬러링(60초) 이용방법
##7270142 + 통화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 선택 후 구매.
SK Telecom 이용고객에 한하여 사용가능.

40초 - 1,200원
60초 - 1,300원



독일의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

슈베르트 3대 연가곡



절찬리
판매중

C-Major DVD 700208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 발레

'갓 찌낸 쥘빵' 처럼 친근한 헤르만 프라이의 슈베르트 3대 연가곡
독일의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1929~1998)는 20세기 후반의 리트 연주
사에 있어서 4년 선배인 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와 쌍벽을 이룬다. 다
만 피셔-디스카우가 지극히 이지적이고 논리적인 스타일로 독일 음악
의 정통성을 리트에 부여했다면 프라이는 그와 대비되는 서민적인 수수
함과 따스한 음색으로 색다른 뉘앙스를 입혔다. 그래서 음악평론가 고
한상우 선생은 클래식 음악방송을 진행하면서 프라이의 음성을 '갓 찌
낸 쥘빵' 이에 비유한 바 있다. 실로 본질을 꿰뚫는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이 DVD에는 슈베르트의 3대 연가곡인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겨울 나그네>, 그리고 <백조의 노래>가 모조리 수록되었을 뿐 아니라
프라이 자신에 의한 간단한 안내가 붙어있다. 게다가 프라이에 대한 38
분짜리 다큐멘타리가 보너스로 제공되는 등 무려 4시간이 넘는 성찬이
다. 촬영된 시점은 1980년대 중후반이고 헬무트 도이치와 레너드 호칸
슨이 피아노를 맡았다. 아무리 슬픈 가락이라도 희망을 담아 노래하는
프라이의 음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특히 <백조의 노래>는 어
떤 성악가의 노래도 지금까지 DVD로 발매된 적이 없다.



표지사진
2009년 베스트 음반들

<아울로스뉴스> 2010년 1월호
통권 제 41호 발행 : 2010년 1월 15일
발행인 : 임용목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edia.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代)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